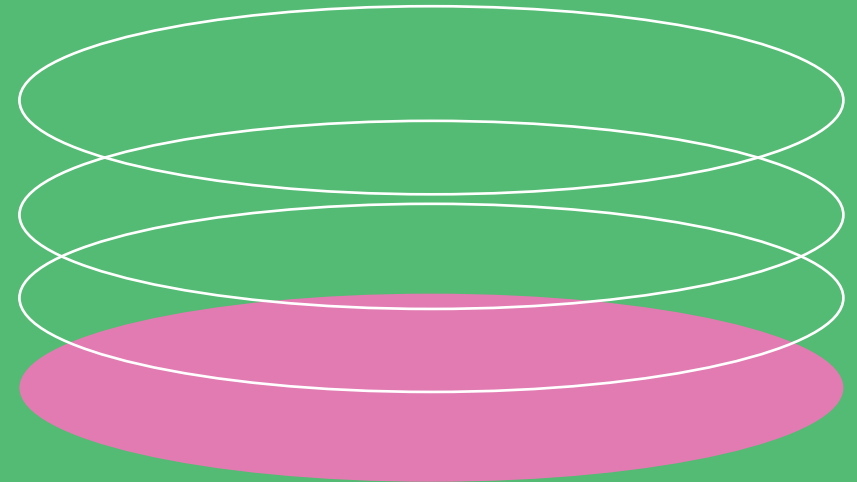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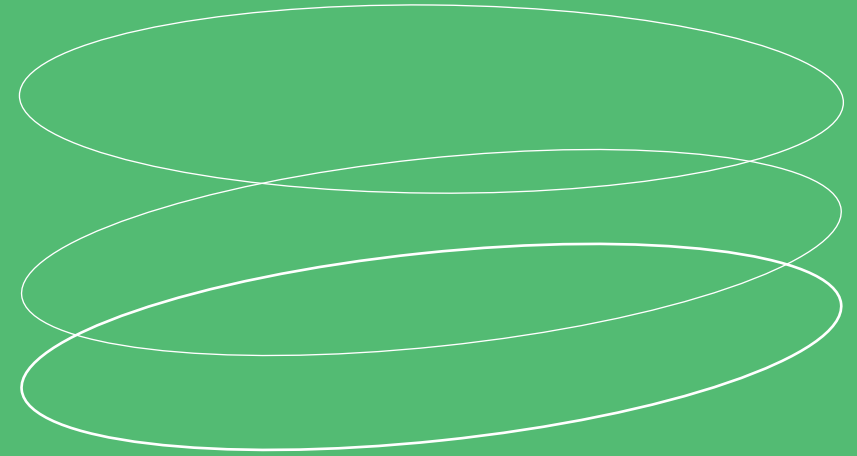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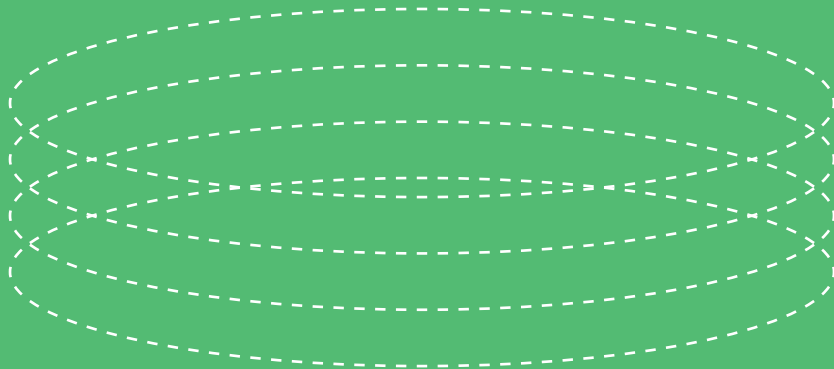
연결의 모양



비매물/무료



9 791192 112395
ISBN 979-11-92112-39-5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기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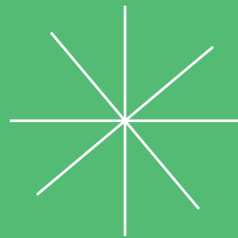
연결의 모양

목차

1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소개	4	2	지역거점센터 ‘툭아보기’	16
1	사업 추진 배경	6	1	광역거점형	
2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7		• 지속 가능한 연결 (서울권)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18
	• 사업 소개			• 연결ON 외로움OFF (충남권) 충남문화관광재단	30
	•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 도시 마음 산책 (강원권) 춘천문화재단	42
3	지역거점센터는?	9	2	거점확산형	
	• 지역거점센터 소개			• 건강한 지역사회 (강원권)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56
	• 지역거점센터 운영 설명			• 당신의 여행을 위한 항해 (전북권) 군산문화재단	66
	• 지역거점센터 핵심 추진 프로세스			• 문화로 땀달게 (전남권) 영암문화관광재단	78
	• 지역거점센터 현황			• 촘촘하고 안전한 관계망 (경북권) 포항문화재단	90
	• 추진 현황 및 성과			• 안녕? 나와 볼, 마을 (경남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02
	• (부록) 사회적 연결척도 엿보기			• 고립과 외로움 없는 (경남권) 김해문화관광재단	114
			3	문화로 사회연대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	124
				• 가장 보통의 외로움	126

1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소개



1

사업 추진 배경

2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 사업 소개
-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3

지역거점센터는?

- 지역거점센터 소개
- 지역거점센터 운영 설명
- 지역거점센터 핵심 추진 프로세스
- 지역거점센터 현황
- 추진 현황 및 성과

부록

사회적 연결척도 엿보기

<2024 문화로 사회연대>

현 사회는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등 인구 변화로 인한 개인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결속력 약화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경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자살, 고독사, 범죄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며, 정부 차원의 정책 의제로 수용해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기능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교류 기회를 확대하며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 및 다양성 존중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마련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고립과 은둔으로 가는 길목에서 문화를 통한 사회적 참여 활동은 외로움 해소 및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안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모두를 위한 문화로 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곳곳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외로움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

- '22년 1인 가구는 750만 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 차지(통계청, 2023)
- 사회적 연결 OECD 국가 중 최하위(OECD Better Life Index, 2023)
- 사망원인 고독사 5년간 0.3% 증가(보건복지부, 2022)
- 고립 청년(34만 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 7.5 조원으로 추산(청년재단, 2023)
- 생활 문화 활동 참여 전후 인식변화 조사 결과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또는 모임(91.2%),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기회(91.1%), 새로운 이웃 및 친구 사귀기(90.2%) 등 사회관계망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지역문화진흥원, 2023)

사업 소개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 상담 지원 및 다양한 지역문화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예방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 단위 거점 플랫폼 9개소(협력 기초거점 포함 20개소) 운영 및 ‘가장 보통의 외로움’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문화적 연결을 지원합니다.

지역거점센터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자 발굴 및 대상 맞춤형 문화를 통한 사회적 처방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척도 측정을 통해 외로움 정도를 진단할 뿐 아니라 연결 개선 정도를 파악해 사회적 처방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표

① 문화로 사회관계망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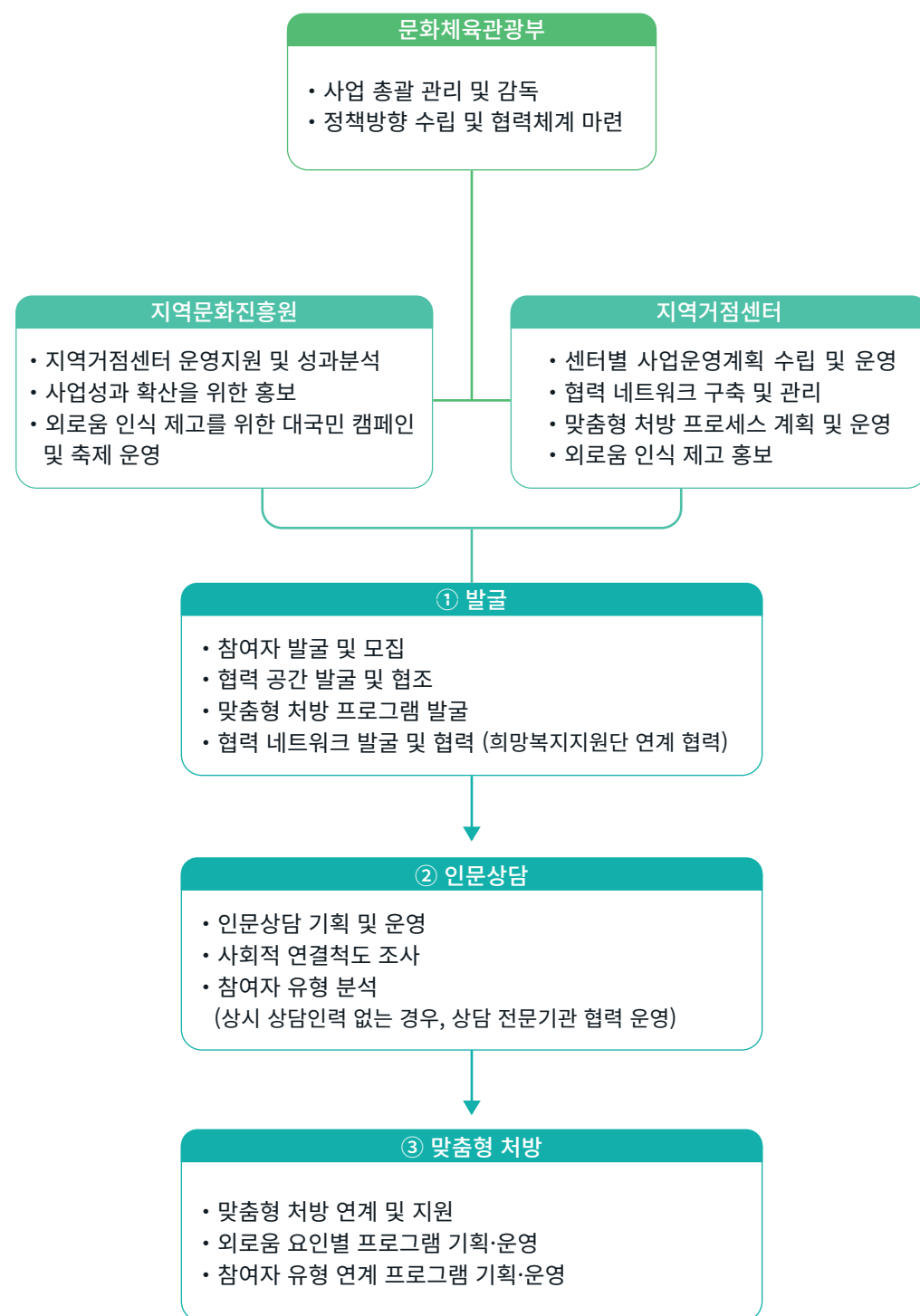
-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예방적 사업 추진을 통한 국민의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일상 회복 지원
- 인문 활용 심리 지원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관계망 연계로 참여 국민의 외로움 예방 및 정서적 안정감 고취
-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거점 형성 지원

②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 외로움은 개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마련
- 복지, 의료, 교육 등 주요 관련분야 간 공동 대응 차원의 협력체계 마련
- 참여자 발굴부터 인문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등 대응 과정 전반에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처방 통합 시스템 마련

③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확산

-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발 계기 마련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 문화를 통한 예방 효과 및 우수사례 발굴로 사업성과 확산 기반 마련



지역거점센터 소개

지역 주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문화자원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 플랫폼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① 외로움을 느끼는 주민을 찾고 (발굴) ② 인문·문화 상담 등을 통한 ③ 맞춤형 처방으로 이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 주민 대상 문화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사회와의 연결, 더불어 일상 속 외로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 주민 모두 스스로없이 이를 주제로 대화하고 돌보는 공동체적 사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거점센터의 주요 역할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로 네트워크망 형성
- 지역 자원별 사업 내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 지원
- 인력양성 및 맞춤형 처방 안내
- 자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마중물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 적극 모집 방안 모색
- 맞춤형 처방과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 지원 등

지역거점센터 운영 설명

① 지역거점센터 참여자 발굴 및 모집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주민을 적극 연계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마중물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는 <협력 기관 연계형>, <지역거점센터 대상 특화형>, <열린 시민 참여형> 3가지 유형을 토대로 운영됩니다.

형태	대상	내용
협력 기관 연계형	협력기관 소속대상	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자원, 정보 공유 및 상호 보완 역할 수행으로 대상자 발굴, 모집 극대화
지역거점센터 대상 특화형	지역 내 대상자발굴	특정대상 그룹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높은 참여율과 효과 달성
열린 시민 참여형	전 시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시민 역량 증진

② 사회적 연결척도 및 인문·문화상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사회적 연결척도를 측정하여 외로움 정도와 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처방 연계의 기초 근거로 활용합니다. 이는 외로움 정도와 욕구 특성을 종합 분석하고, 전체적인 외로움 정도와 사회관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처방 제공이 목적입니다.

③ 맞춤형처방

지역 자원 조사 및 발굴, 협력 기관과 단체 간 연계, 사회적 연결척도와 인문·문화상담을 통해 지역과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외로움’ 맞춤형 처방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력 기관과 단체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결척도와 인문·문화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외로움 정도와 사회적 관계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요구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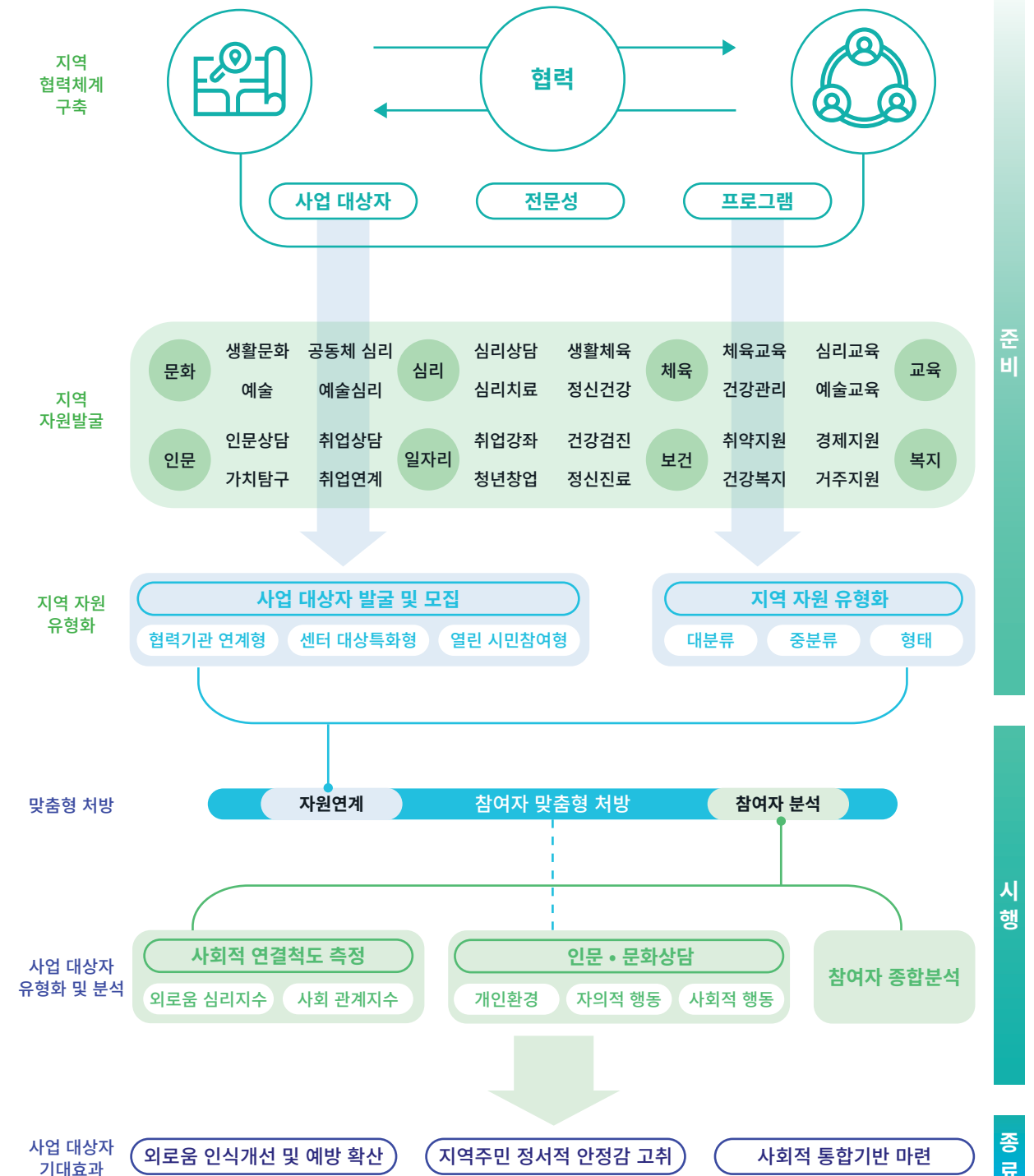
④ 사업 대상자 사후관리 지원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와 같이 1, 2년 차 사업 단계에서 사업 기간 내 사후관리 지원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운 단계지만, 중·장기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참여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룹화	지원 방안
개선 대상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크게 감소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대상자 - 지속적인 활동 유도 - 리더십 기회 제공 - 지역 커뮤니티 활동 연계 -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동 대상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대상자 -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개별 상담 및 지원 - 추가 프로그램 참여 유도 - 관계망 강화
악화 대상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거나 전반적인 상태가 악화된 대상자 - 긴급 지원 제공 - 프로그램 평가 및 재설계 - 개별적 맞춤 지원 - 주기적 모니터링 및 추적

단, 병리적 심각성을 보이는 대상자의 경우, 관련 기관 연결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센터 핵심 추진 프로세스



지역거점센터 현황

	지역거점센터	운영기관	사업지(기초)
1	서울 지역거점센터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2	충남 지역거점센터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3	강원 지역거점센터	춘천문화재단	속초시,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4	강원 지역거점센터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원주시
5	전북 지역거점센터	군산문화재단	군산시
6	전남 지역거점센터	영암문화관광재단	영암군
7	경북 지역거점센터	포항문화재단	포항시
8	경남 지역거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창원시
9	경남 지역거점센터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

추진 현황 및 성과

협력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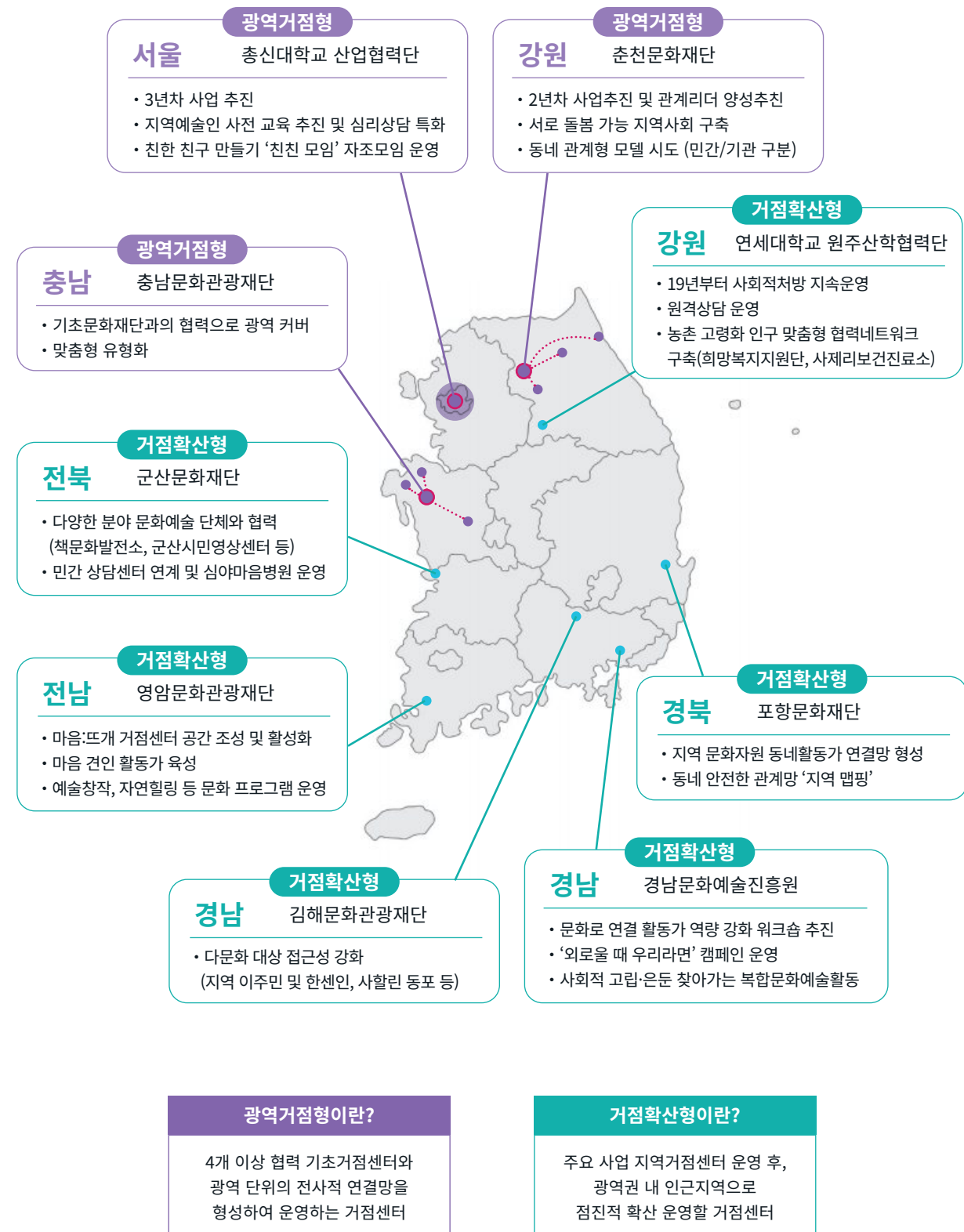
- 협력네트워크 수 386개 / 운영 수 457회

프로그램 *마중물·맞춤형 합산

- 프로그램 수 229개 / 운영 수 1,057회 / 참여인원(누적) 15,866명

구분	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프로그램운영					
	지역거점	운영거점	협력기관	운영횟수	마중물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운영횟수	참여인원	프로그램	운영횟수	참여인원
서울	1	4	75	134	7	7	161	25	100	1,300
충남	1	3	98	39	7	28	1,920	26	160	1,456
강원A	1	3	52	24	8	12	1,430	55	307	1,730
강원B	1	0	6	58	2	3	120	5	78	897
전북	1	0	26	14	1	4	232	10	30	367
전남	1	0	30	13	2	6	83	8	38	1,283
경북	1	0	21	88	7	25	292	5	20	405
경남A	1	1	52	46	2	6	397	24	138	1,722
경남B	1	0	26	41	17	32	928	18	63	1,143
계	9	11	386	457	53	123	5,563	176	934	10,303

※ 강원A=춘천문화재단, 강원B=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경남A=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B=김해문화관광재단



사회적 연결척도 질문(총 20문항)

① 외로움 심리지수(8문항)

문항 구분	
소원감	고민을 상의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가까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고립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모른 채하는 것 같다
	나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위축된 사교성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꺼리는 편이다
자기 가치감	나는 누군가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나는 누군가가 행복해지는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외로움 심리지수 구성]

- 외로움 심리지수 문항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수준 및 인식이나 생각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됨
- (소원감)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소원함(부재, 단절, 결별)에 의해 초래되고, 애착, 융합, 유대, 양육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갈망, 그러한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하는 동기를 반영하는 ‘개인 간 외로움’ 요인
- (고립감) 주변사람에게 느끼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감,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동화하지 못하고 소외된 느낌, 고립무원의 상태로 혼자 남겨진(Left out alone) 느낌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 무력감, 두려움, 불안을 반영하는 ‘실존적 외로움’ 요인
- (위축된 사교성) 심리적 모순과 내적 갈등에 의해 초래되는 외로움 유발 요인으로,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려는 사회적 억제(Social inhibition) 경향, 사회적 상황에 놓이는 기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철수(Withdrawal) 경향,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에 대한 부정적 혹은 회의적 평가를 반영하는 ‘개인 내 외로움’ 요인
- (자기가치감) 자신에 대한 사회적 환경(타인)의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자기존중감을 재확인하고, 사회적인 참여와 몰입(Engagement)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식을 획득함으로써 외로움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 요인

② 사회 관계지수(12문항)

문항 구분	
개인환경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외부인(동거가족 이외)의 방문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께서는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귀하의 협재 가구 내 일(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본인포함)
	혹시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의적인 행동	귀하께서는 지난 한 달간(1개월) 얼마나 집 밖으로 외출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혼자서 식사하는 빈도는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께서는 여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주중, 주말 혼자 있는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 (혼자 OX) *오픈질문
사회적 활동	귀하께서는 평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최근 3개월 간 1달 평균 활동하신 대면/비대면 모임 활동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귀하의 경/조사(결혼식 장례식 등) 시 연락이 오는 지인의 수는 몇 명쯤 되십니까?
	그러면, 귀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사회 관계지수 구성]

- 사회 관계지수 문항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재 상황, 환경이나 행동, 활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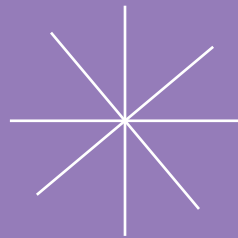
사회적 연결척도 유형화 구분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연결척도를 토대로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는 2~4그룹을 주요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각 그룹의 개념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

구분		개념적 정의
사업 주요 대상	1그룹 (심각집단)	심리적인 외로움 수준과 사회적 관계 모두 심각한 수준이므로 치유를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집단
	2그룹 (경계집단)	심각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 처방에 의해 심각한 수준을 모면할 수 있는 집단
	3그룹 (주의집단)	심리적인 외로움이나 사회관계가 문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터치가 수월한 집단
	4그룹 (관심집단)	사회적 연결 관리를 위한 관심이나 주의를 가지기 시작해야하는 집단
	5그룹 (자립집단)	사회적 연결 차원에서 자발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집단

2

지역거점센터



툐아보기



사업 기록영상
보러 가기



지역거점센터 결과
보러가기

1

광역거점형

- 지속 가능한 연결
(서울권)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결ON 외로움OFF
(충남권) 충남문화관광재단
- 도시 마음 산책
(강원권) 춘천문화재단

2

거점확산형

- 건강한 지역사회
(강원권)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 당신의 여행을 위한 항해
(전북권) 군산문화재단
- 문화로 맴달게
(전남권) 영암문화관광재단
- 촘촘하고 안전한 관계망
(경북권) 포항문화재단
- 안녕? 나와 볼, 마을
(경남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고립과 외로움 없는
(경남권) 김해문화관광재단

지속 가능한 연결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권

대상지역

서울시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주요대상

서울시민(지역구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양육자, 아동·청소년, 중장년, 독거노인 등)

주요내용

- 주요대상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부모 교육,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을 주제로 한 특강 (마중물 프로그램) 진행
- 지역예술인 심리상담 기본교육, 심리학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 강화
- 지역예술인과 협업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심리지원 연계를 통해 전문 심리 검사 및 상담 진행
- 마을 활동가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사후 프로그램인 '친친 모임' 운영

주요 특징

-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로 사회연대 시범 사업 실시, 2024년엔 서울 내 5개구를 협력기초거점센터로 두고 문화재단과 MOU를 맺어 광역거점센터로 확장
-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의 특징에 따른 맞춤 상담이 가능하며, 예술인들이 프로그램 진행 시 심리상담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사후에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연결,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활동가 중심의 친친 모임 진행

협력기초거점센터

- 관악문화재단
- 도봉문화재단
- 동대문문화재단
- 송파문화재단
- 양천문화재단

대상자발굴

- 관악구 청년청 외 청년 관련 지원 기관
- 동작보건소 등 지자체 행정복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지역 종교기관

인문·문화상담

- 나무마음심리상담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동남)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동북)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서남)센터
-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중부)센터

맞춤형 처방

-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외 복지기관
- 송파글마루도서관, 송파구립교향악단
- 나비심리발달센터
- 아동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 외 대상지역 내 종교기관 및 민간 상업 공간

후속 연계

- 마을 활동가 중심의 사후 프로그램 '친친 모임' 운영

공간 연계

- 대상지역 내 복지관, 도서관, 지자체 공간
- 대상지역 내 종교기관과 민간 상업 공간

● 협력네트워크 수

75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2

지자체

6

사회복지

2

의료보건

6

상담

14

교육

35

문화(예술)

10

기타

누구나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기를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 문화, 사회, 연대, 외로움, 고독, 고립 -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1. 왜 우리는 ‘문화’로 연대해야 하는가?
2. ‘외로움’은 어떤 감정이고, 왜 이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가?
3. 연대는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시작부터 함께한 2년 차 사업 진행 기관이다. 작년에는 ‘서울 동작구’를 지역거점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여 ‘광역거점센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조현섭 교수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대해 깊이있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 동작구’에서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동네 단위의 실험을 이어오고 있는 ‘친친 모임’의 안경애 마을활동가와의 만남은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활동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마을 주민으로서 주민들과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주었다.

인터뷰 키워드

지역자원

필요성

지속성

자조모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관련 된 사업을 추진하시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일 큰 변화는 2년 전 서울시 동작구에서 시작한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대상자 군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문화재단,
복지기관, 지역사회 유관 단체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며 다양한 기관으로 확장되었고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노하우와 프로세스를 통해 여전히 외롭고 고립된 분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사업 과정에서 드는 다양한 고민과 생각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충신대
교수님들과 매주 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문화로 사회연대>의 필요성과 사업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의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그동안 외롭고 고립된 분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친친 모임’으로 연결되었는데, 사업 종료와 함께
지속적이지 못한 상황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단순 외로움 해소를 넘어 외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개인, 집단)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충신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고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술프로그램의 접근에서 나아가 좀 더 전문적인 치유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외롭고
우울한 사람들의 특성, 프로그램 진행 시 주의할 점, 프로그램 종료 후 심리상담이 필요한
참여자의 특성 등, 예술인도 단순히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기법
등을 교육하여 심리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절감 및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외롭고 고립되어 지냈던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친 모임’ 참여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훈련 및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충신대 산학협력단은 동작구 사업장을 조사하여 차후 MOU를 체결하고 외롭고
고립되어 지내는 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말씀처럼 <문화로 사회연대>는 문화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대를 위하여 문화는 왜 매개가 되었을까요.

올해 사업의 캠페인 슬로건 ‘가장 보통의
외로움’과 같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각자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문화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지냈던 분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낼 때
‘문제가 있으니, 심리상담을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누가 참여를 할까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동네 사람끼리 모여 도자기를 만들어
봐요’라고 제안한다면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문화의 힘이라고 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한 지 34년이 되어가는데,
대부분 심리상담을 오는 분들의 주요 문제는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행복감을
느낍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며 웃고 떠드는 것은
삶에 매우 중요한 활력소이고 이러한 접점이
없다면 더 외로워지는 거죠. 영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talk talk(톡톡)’ ‘내가 외로우니 누가 좀 도와줘.
누구하고 얘기만 해도 괜찮겠어.’라고 말하자는
거거든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
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개
서울권(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의 문화재단과 심리 지원센터, 복지관,
교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때 5개 구의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역 주민 중 우수한 예술인을 추천받아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더 친밀하고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참여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화로 사회연대>는
사업명과 같이 ‘문화’로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는 시작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프로그램(친친 모임)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가야금’

그렇게 동네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친친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출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업 참여자끼리 어떻게 어울리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친친 모임’의 시작입니다. 처음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로운 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교회나,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용실, 약사회, 도서관, 학교, 구청 등을 방문하면서 ‘마을 활동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동작구 ‘안경애 마을 활동가’를 만나면서 ‘친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친친 모임’은 외로운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와 주기적으로 만나 외롭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즉, 전문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외로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마을 활동가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로운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낯설지 않게 맞이하는 방법,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감싸주는 모습에서 ‘친친 모임’은 앞으로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거점센터가 갖는 어려움인데, 문화와 복지의 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문화와 복지의 협업은 당연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시설은 이미 지역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고, 많은 시설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참여자 발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외로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진행하는 문화사업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긴 시간과 연속성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실적을 쌓기보다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 서로 협력하여 그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살피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협업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지역의 활동가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교육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심리상담사와 예술인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심리상담가와 예술가가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4개의 심리지원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외로운 사람에게 문화 예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개인, 집단), 교육, 대인관계 등의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지역 주민과 더 잘 어울리고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 협업에서 또 중요한 협력네트워크가 있다면 지역 내 교회와 카페가 있습니다. ‘친친 모임’을 마친 후 추가 모임을 하고자 했을 때, 커피값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지역 시설과 협업을 맺는 것이 실제로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광역거점형-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마을활동가 사당공방연합회장

안경애
힐링수다공방 대표

동작구 사당동의 ‘친친 모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만나기 2년 전, 동작구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 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동네 안에서 편한 복장과 슬리퍼 차림으로 만날 수 있는 ‘친한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우울감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친구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동네에 있는 다양한 공방들과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각 공방 대표님을 만나보니 공방 장소를 매개로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 모두를 한곳에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업 첫 해 14개의 친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3년 차 동네 ‘친친 모임’을 만드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친친 모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동작구는 올해까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는 6개의 친친 모임이 있는데, 다인공방, 동문 사람들, 베이킹봄봄, 사부작, 판화작가 신혜선, 가야금 연주가 장원영을 축으로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토탈공예를 하는 ‘다인공방’은 청소년 대상의 첫 친친 모임입니다. 중2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실컷 먹고 각자 고민을 나누는 형태이고, ‘동문 사람들’은 동작 문화센터에서 만난 30대부터 60대 아줌마들 모임으로 첫해부터 영화도 보고 취미생활도 하며 올해는 ‘세대 공감 카드’를 제작해서 카드 속 키워드로 대화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사부작’은 ‘사당동에서 부지런히 작업하는 엄마들’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를 자녀로 둔 엄마 모임이지만 3년 전에 시작한 만큼 이제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답니다. 올해는 숲에 가서 차도 마시고 자연을 즐기는 활동을 했고, ‘베이킹 봄’은 제빵을 처음 하는 엄마들이 3년 전에 만났는데, 작년에는 부부 모임으로 올해는 아이들까지 모여 가족 모임이 됐습니다. 특히 구성원 중 한 분은 지방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난다고 합니다.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가야금’은 장원영 연주가를 축으로 예술프로그램과 지역 연주회로 만나 12명의 친친 모임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 6~7명이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임마다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방식은 다르겠지만,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구마다 각기 다른데, 첫해는 4회~12회로 다양했고 작년에는 4회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회의 만남으로 구성되었지만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2회지, 평소 친친 모임 구성원에게 위로 할 큰일이 생기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다면 동네 친구로서 자주 만나고 있어요. 첫 해 진행 방식은 심리상담 교수님들이 프로그램마다 직접 참여해 주셔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지닌 분들에게 심리상담 지원이 있었어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지만, 누군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만났던 교수님께 연락하여 간단하게 심리상담도 받고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3년째 ‘친친 모임’을 운영하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있을까요?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작년에 우울감 척도 조사 중에 중년 남성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본인은 2년 만에 집 밖으로 외출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가야금’, ‘친친 모임’을 참여 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노랑진에 혼자 외롭게 계시느니 사당동 우리 동네로 이사 오세요. 제가 많이 신경 써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이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죠.

그때 제 사무실에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다 보니 건강이 좋지 않아 하는 일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중년 남자의 삶이 너무 무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봉사하는 곳도 소개해 드렸고 그곳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며 표정이 되게 밝아지고 무언가 했다는 뿌듯함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침마다 초등학교 교통 봉사를 하던 중이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더니 그분이 매주 금요일에 봉사를 나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분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도 안 한 자신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 준 자체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 하시다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구청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나는 형제도 가족도 없다’라고 하신 말이 생각나서 친친 모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연고 장례를 치러 드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작은 영정 사진과 꽃바구니를 마련하여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친친 모임이 좋았던 건, 제 나이가 현재 쉰다섯인데.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분과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만났지만, 그냥 친구처럼 남녀노소, 빈부격차 없이 같은 선상에서 만나며 감정을 나누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만남을 지속하며 ‘친친 모임’의 후기나, 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시민인 사람들에게 이런 만남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 큰 호응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친친 모임에서 느낀 확실한 변화는 처음 만났을 때는 편하게 말도 못 했던 ‘사부작’ 친친 모임 구성원인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의 역할은 충실하지만 자기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에는 엄청 어색한 거죠. 발표도 해봐야 습관이 된다고 무엇이든 밖으로 꺼내야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듯이 3년 차가 된 지금의 ‘사부작’ 엄마들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제 중학교 학부모회장도 하고 단체 활동에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친친 모임의 변화는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웃과 더 가까워지며 어떤 자리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사실 저는 친친 모임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임을 경험했던 14개의 참여자가 5명씩만 잡아도 6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각 마을로 흩어져 다시 친친 모임을 만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변화를 느낄 거라고 예상했어요. 첫회는 14개였지만 100개까지 만들고 싶었던 거죠.

사업으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 모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제 역할에 ‘마을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동네에서 ‘홍 반장’ 같은 역할을 도맡았어요. 그런데 친친 모임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죠.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건, 동네 아이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심심함, 어딘가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하소연이 정제되거나 흩어지지 않고 ‘홍반장’ 같은 사람을 주축으로 연결되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필요한 곳에 할 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통해서 참여자로 만났던 사람 하나하나가 한 마을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을 활동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친친 모임’이 지향하는 것처럼 동네에 저 같은 활동가가 많아진다면, 서로의 관계가 좀 더 촘촘해지고, 그 연결 부위는 더 넓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친친 모임’의 활동가이자 운영자로서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 ‘모든 건 밖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는 거죠. 똑같은 길 위에 한 3일 정도 서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인사를 건넬 거예요. 어느 동네든 저 같은 사람 한 명은 있거든요. 똑같은 장소와 시간에 나가서 햇빛을 받고 있으면 ‘어? 저 사람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또 있네, 그리고 3일째가 되면.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라고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하고 햇빛 받으러 나오기하면 마음이 따뜻한 누군가가 분명히 손잡아줄 거라고 믿어요.



서울권 지역거점센터 동작구 친친 모임

동네에서 애들 키우고 엄마들 하고 웃고 떠들다 보니 벌써 애들이 30살, 27살이 되었어요. 다 컸어. 우리가 마을의 인간 CCTV예요.

친친 모임 참 좋은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 아쉽거든요. 멀리 가지 않고도 이렇게 가깝게 예술을 접하기도 어렵고 가야금을 코 앞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인데, 친친 모임은 음악회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참에 가야금 선생님 모시고 학부모들도 배웠으면 싶어서 학교에 건의도 했어요. 친친 모임은 청년 일자리도 챙기고 지역사회 발전으로 확대도 되는 거죠.

저는 직장인 엄마고 외동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 방식과 고민을 나누다 보니 친친 모임이 사랑방 같이 느껴져요. 프로그램 장소도 외부 대관이 아닌 동네 커피숍 사장님까지 다들 아는 얼굴이라, 편하게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정말 안방 같아요.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가야금’ 포스터만 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연주를 들었어요. 생각하지 못한 질문도 주고받고 처음 본 사람과 술술 대화가 이어졌죠. 나이를 넘어 악기로 친해지고 삶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더라고요.

저는 이 동네에 살면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고 만나면 일단 즐거워야 해요. 저도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데 스트레스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같은 동네에 사는 동생과 서로의 삶과 일상을 공유 했던 거죠.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가야금’의 목소리를

연결ON 외로움OFF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권

대상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예산군

주요대상

충남시민(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인, 청년, 아동·청소년 등)

주요내용

- 도 단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 기초거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각 지역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 내포권(충남)은 노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마중물 프로그램 및 맞춤형 처방 진행, 외로움 인식 개선 캠페인과 지역주도 연결사회 확장에 주력
- 동남부권(공주)은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을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 국립공주병원과 협력하여 외로움, 고립감과 더불어 건강상태 함께 파악
- 북부권(당진)은 아동·중장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 정서 안정 및 자아회복에 집중
- 서해안권(서산)에서는 고위험군·스트레스군을 대상으로 마중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 참여자들의 자발적 모임 진행

주요 특징

- 충남문화관광재단은 광역거점형 역할에 맞춰 충남지역 기초문화재단 간 협력 체계 구축
- 탄탄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마련
- 이를 통해 충남지역 곳곳에서 시너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여러 기초 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해 전 지역을 아우르는 연결망을 형성하는 등 광역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협력기초거점센터

- 공주문화관광재단
- 당진문화재단
- 서산문화재단

대상자발굴

- 서산경찰서
- 대한노인회서산지부
- 서산시가족센터
- 서산경찰서대산지구대
- 성연생활문화센터
- 서산생활문화센터

인문·문화상담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맞춤형 처방

- 공주마을예술놀이터
- 문화공감터
- 자연음식연구원
- 큰그림협동조합
- hj연구소
- 다원갤러리
- 오색꽃차치유농원
- 빙타타악기
- 행복나무심리센터
- 엄마꽃그릇
- 지역예술가
- 충남도서관

● 협력네트워크 수

98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40

지자체

20

사회복지

5

의료보건

2

상담

7

시민단체

21

문화(예술)

3

개인

광역거점센터와 기초거점센터 조금 더 멀리 따로 또 같이

충청남도는 넓은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가진 지역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 지역과 은둔 청년의 증가, 천안과 아산에 집중된 인구 밀도는 도시와 농촌 간의 복잡한 사회적 단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은 광역거점센터로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당진, 공주, 서산문화재단과 같은 기초거점센터와 협력하여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광역거점센터와 기초거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며 접근하고, 광역거점센터만이 시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손지영 총괄책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거점센터가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지역거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들 수 있었다. 또한 서산문화재단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충남권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인터뷰 키워드

광역거점센터
협력네트워크
지속가능성

충남문화관광재단 총괄책임

손지영

충남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본부
예술인복지팀장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광역거점센터’로 사업이 운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광역거점은 어떤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나요?

서울권, 강원권과 더불어 지역거점센터인 광역재단이 협력거점센터인 기초재단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충남 지역은 도 단위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밀도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충남 3개의 기초재단인, ‘당진문화재단’, 공주문화관광재단, ‘서산문화재단’과 협력했고, 지역별 대상 분석을 통해 수요와 요인 맞춤형 처방을 수행하는 등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문화관광재단은 내포권역 사업 수행의 기능도 하지만, 특별히 광역재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정책 단위로서 역할을 해내야 하므로 중앙, 광역, 기초와의 협력을 끌어내고 제도를 마련하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 충남권 사업 수행 체계는 사업 절차에 따라 대상자 발굴, 사회적 연결적도, 맞춤형 처방, 사후 조사 및 처방 순으로 진행하고 있고, 60여 개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연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광역거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광역’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역할을, ‘기초’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행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의 문화복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내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먼저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며 본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광역으로서 ‘외로움 관련 조례 제정’이나 ‘통합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등 제도의 안정화를 꾀했고 충남만의 연결 사회와 관계망 형성을 위해 ‘충남권 통합 릴레이 캠페인’이나 ‘공론장’ 같은 광역과 기초가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공식 행사를 엮어 왔습니다.

지역거점센터와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려운 점도 있었을까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핵심은 ‘협력 기관과 참여자 모두가 화합하고 연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충남, 당진, 공주, 서산 4개의 거점이 각 기관의 강점을 드러내기보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도민의 안녕을 위한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정 중에 어려웠던 점은 충남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대상 유형화’, ‘단계별 처방’이었는데, 4개 기관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적용이 필요한지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지역의 상황이 각각 다르고 자원과 여건에 한계도 있어서 통일감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을 대하는 방식이 보다 성숙해지고, 근거 마련부터 출발한 실효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관과 기관, 지역과 지역 안에서 느슨한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과정이 중요했지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대상자 발굴이었습니다. 충남은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4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은둔 청년 고립 수준이 심각 단계라는 통계청 조사가 있지만, 그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적절한 처방을 위하여 대상자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중점을 두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내년도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도 차원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역거점센터로서 ‘지역 간 협업’과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국내외적으로 이슈인 국민의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거점으로서 ‘지속’과 ‘확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적 변화를 만들고, 사업의 영향 평가와 관리를 통하여 지속의 당위성 확보, 공간, 내용, 운영 등 다각적인 관점을 가진 방법론과 접근에 대한 확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생각하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무엇이고, 왜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야 할까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여,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고독함이나 쓸쓸함보다는 행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분야에서 흔히 느낄 수 없는 기쁨, 슬픔, 즐거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도구이자 특수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나 지역은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해왔는데요. 정부는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역은 활발한 논의와 함께 문화 향유에 관한 실천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외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문화의 가치’, ‘문화가 가진 힘’, ‘문화적 영향’에 대해 학술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고요. 그만큼 문화는 대중의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실마리로서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문화재단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나요?

고독사와 우울증으로 안 좋은 소식들에 관심이 높았는데, 올해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공고를 보고 서산의 지역적 외로움과 높은 고독사율 그리고 농촌 지역 외로운 어르신들이 떠올라 서산문화재단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은 지역민 연령대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울증으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할 데가 없다고 해요. 가족 구성원도 아이들은 다 커서 도시로 떠나고 남편과 함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좋은 대책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서산문화재단은 기초거점센터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산문화재단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한모금YOU’ 라는 마중물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를 발굴했어요. 협력 기관을 고민하다 ‘사회적 연결척도 검사’ 측정에서 고위험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염두하여 협력하였고 발굴을 위한 도구로 커피차를 동원했는데 지역 체육센터, 고용·복지 일자리 센터, 서산경찰서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니다. 마중물 프로그램 이후 1단계~5단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사회적 연결척도 검사’ 측정에서 관심, 주의, 경계 집단군을 대상으로 280여 명 정도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심리 상담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몇몇 분에게는 사후관리 차원의 상담센터 연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광역거점인 충남문화관광재단과 기초거점센터인 서산문화재단이 협업하게 되었는데, 기존 사업과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문화관광재단도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지, 문화프로그램 위주로만 만들어도 되는지 두 기관 모두 여러 궁금증이 생겼고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재단과 협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사업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의 참여에서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여러 부분이 유연하게 진행되었고 기관 내 타 사업 연계나 내년도 사업을 위한 계획도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맺으셨는데, 새롭게 연결된 원가 예술가나 새롭게 생성된 네트워크도 있을까요?

올해 참여한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내년 사업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예술단체는 내년 참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성연생활문화센터에서도 <문화로 사회연대> 프로그램 요청이 많았기에 센터 차원으로 기획하여 지속적인 운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마침, 대표이사님께서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여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서산의료원 원장님,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세 분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으로 확대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전달받은 상태라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으로 생겼던 어려움이나, 추가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단계별 문화프로그램에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자신을 닮은 인형을 꾸미는 시간도 반응이 좋았지만, 수목원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근교로 나가서 바람을 쐬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주중으로만 운영하였다가 주말 프로그램을 추가로 만들어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조금 더 충분했다면 외부 진행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자들 또한 프로그램 회기와 시간이 짧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긴 서사를 가진 한 편 인데, 재단의 사업상 준비 시간이 무척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하였고, 기간을 길게 두어 검사와 진행 과정을 살피고, 사후 검사까지 진행되어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예산과 기간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지역의 요청에 맞춰서 깊이 있는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기억에 남는 참여자나 사업 전후 변화와 관련해서 인상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대상자 발굴은 재단으로서도 의미가 깊은데,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프로그램 첫날 캘리 그래피 시간에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전각에 이름을 새기고 강사님이 써준 글귀에 자신의 낙관을 찍었어요. 그런데 글귀를 보고 한 참여자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제가 세상 밖으로 나온 첫날이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족과 관련된 개인 사정도 있으셨고, 깊은 우울감과 은둔 생활로 7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셨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그분이 저와 산책하시다가 한 번 안아달라고 하셔서 꼭 안아드렸더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나오신 건 아니고 지인 추천으로 어렵사리 나오셔서 프로그램 첫날 캘리 그래피 글귀에 울컥하셨고 다른 참여자들을 보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구나’ 싶으셨대요. 그렇게 이번 사업 끝까지 참여하신거죠. 현재도 상담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참 남습니다.



맞춤형 처방 ‘나를 닮은 모루인형을 만들어 마음을 표현하기’

이번 사업의 담당자로서 생각하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문화로 사회연대>는 문화가 연결고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고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수목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로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서로 어디 사는지 궁금해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동아리 활동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회 연대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 연결되어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분이 다 같이 소통하고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연결고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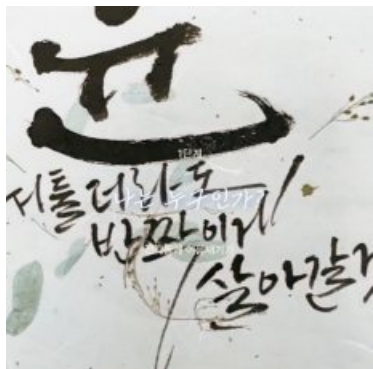
서산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을까요?

서산에 살게 된 지 5년이 되었는데, 성연면으로 이사를 오면서 체육센터를 다니게 되었어요. 체육센터 건물에 서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연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문화로 사회연대> ‘한모금YOU’ 라는 홍보를 보고 쿠키에 커피 한잔하려고 가볍게 들린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행사에서 ‘사회적 연결척도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2단계로 측정이 되었다고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 하시길래, 걱정이 많았지만 한번 해 보기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일까요?

제 일상은 집, 운동, 집, 운동 이런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천리포 수목원’으로 근교 나들이를 하러 간다니까 더 부담스러웠어요. 버스에 앉는 것, 밥을 먹는 것, 차를 마시는 것 모두 걱정이 앞섰는데 같이 체육센터를 다니던 몇 분도 가신다고 하고 어느 분은 제 옆자리에 앉아 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시길래, 수목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나눠 먹으며 친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로의 이름과 동네도 알게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카톡방도 만들었는데 그동안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마주치면 반갑고 관계에 시작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닮은 모루 인형도 만드는 시간도 있었는데, 서로 닮았다고 농담도 하고 칭찬도 하는 시간이 그냥 즐거웠어요. 아, 이런 게 ‘연대감’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 현재는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 변화가 느껴지는 게 아직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 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서산에 살기 전에 큰 도시에 살면서 주변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렵고 밖에서 평범하게 대화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눈물이 나거나 무기력해서 누워만 있고 우울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집에 오래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한 게 지각이나 결석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무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아니었으면 계속 집에만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상담센터에서 사후관리도 받는데 제가 대인관계에 갖는 어려움이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면 상담 선생님께 받는 해결책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표정도 밝아지고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신이 건강해지니 신체도 변하는지 부종도 줄어든다고 활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들어보니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프로그램 처방이 된 것 같은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참여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힘이 되었어요. 평소에도 슬픈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생길 때가 있는데 동네 가까운 곳에 관계 맺은 사람들이 생기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따뜻함을 느껴요.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느끼는 개운함이나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주는 주변인들 반응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은 상담 센터를 다니게 된 것도 처음에는 주변 눈치도 보이고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겉으로 알리지 못했는데 현재는 상담 받고 있다고 편하게 말하고 지내고 있으니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 마음 산책

춘천문화재단
강원권

대상지역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주요대상

지역주민, 운송업 종사자, 공공업무 종사자, 감정노동자, 소상공인(속초), 타향 이주민(인제), 사회복지 실무자(홍천)

주요내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동 및 공간을 연계하여 사회적 문제 대응을 위한 <도시 마음 산책> 진행
- 지역거점센터 내 자체 운영 ‘관계 리더 양성 과정’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원활한 관계 맺음을 기반한 운영 지원
- ‘마음을 잇-길’, ‘안녕을 묻는 정담회’, ‘찾아가는 상담소’ 등 마중물 프로그램과 맞춤형 처방 진행
- 춘천시 동네(교동, 후평동)를 기반으로 한 동네관계형 모델을 기획하여 사업 운영, 이를 협력기초거점센터 일부에도 적용
- 지역의 주요 특성에 따라 속초는 지역 소상공인, 인제는 이주민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동네관계형 모델 활용하여 사업 진행

주요 특징

-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2년차로 접어든 지역거점센터로, 문화도시 ‘도시가 살롱’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소통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네 관계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외로움이 누구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임을 지역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담회’와 같은 공론장을 꾸준히 마련해 외로움에 대한 인식 확산

협력기초거점센터

- 속초문화관광재단
- 인제군문화재단
-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 공정마을플랫폼협동조합

대상자발굴

- 춘천교육지원청
- (재)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 춘천희망택시협동조합
- (사)전국 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강원도지회

인문·문화상담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강원상담심리협의회

맞춤형 처방

- 풀로 외 23곳 춘천시 내 민간 상업 공간
- 길벗마을돌봄간호사협동조합
- 한림대학교 커뮤니티 교육원
- 춘천여성협동조합

후속 연계

- (재)지혜의 숲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간 연계

- 도시재생과
- 교동소양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춘천사회혁신센터

● 협력네트워크 수

52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5

지자체

1

사회복지

1

의료보건

2

상담

1

교육

6

시민단체

35

개인

1

기타

서로의 안녕을 묻는 다정하고 안전한 동네에 대하여

본 인터뷰를 준비하며 진행했던 사전 인터뷰에서 '춘천문화재단'이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바로 '지속가능성'이었다. 특히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 사업은 구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다 보니, 매년 예산 집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이로 인해 각 기관은 정책과 예산을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춘천문화재단은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는 바로 '동네'이다. 동네는 지속가능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구분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라고 느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마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소속감을 가진 범위를 뜻한다. 동네의 중심에서 관계를 잇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존재한다면, 사업을 넘어서는 지속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춘천문화재단'이 시도했던 '동네 관계형' 모델은 동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리며 살피는 '돌봄'의 의미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 키워드

사업2년차

연속성

지속성

관계리더

동네관계망



춘천문화재단은 올해로 <문화로 사회연대> 2년 차 기관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해는 사회적 처방 구조에 맞춰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다양한 시민층에서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적 처방 프로세스에 맞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신청을 하면 ‘사회적 연결척도’를 검사하고 단계에 맞는 인문 상담을 통한 커뮤니티 추천 및 맞춤형 커뮤니티에 참여합니다. 작년과 차이점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분들을 ‘관계 리더’로 명명하는데, 사업 특성상 참여자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계 리더 양성 과정’을 마련하여 문화와 심리가 동반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지원했어요. 고립감과 외로움이 병리적으로 특이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감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걸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정담회’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한 것이 작년과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끝으로 올해 새롭게 시도한 ‘동네 관계형’ 모델을 마련하여 동네 커뮤니티 활동을 일으키고 지속될 수 있도록 후평동과 교동의 사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네 단위 관계망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성을 바라본다고 하셨는데, ‘동네 관계형’ 모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동네 관계형’ 모델은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집, 직장, 학교 등 자신이 주로 가는 공간 이외에 ‘제3의 공간’이 동네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가깝게 자주 발걸음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에서 이웃 주민과 소통이 많아지면 고립과 외로움 같은 감정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동네 관계형’ 모델 두 곳 모두 구도심인데 교동은 ‘어르신 대상 마을문화 돌봄프로그램’으로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정서적으로도 건강하다는 생각에 연령대가 높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문화적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였고 후평동 같은 경우 동네에 다양한 민간, 공공 공간을 연계하여 동네 주민의 문화적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춘천문화재단이 지향하는 동네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전 인터뷰에서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담회 이야기 손님이 ‘돌봄’에 대하여 ‘누군가를 그냥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누군가 나를 애정 어리게 지켜봐 주는 것을 당사자가 느끼는 것만으로도 ‘돌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본다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시간이 맞으면 동네 할머니와 순댓국 한 그릇을 나눠 먹을 수 있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 구체적인 도움이나 실질적 행위를 하진 못해도 ‘오늘은 왜 산책을 하지 않으시지?’라는 관심부터 서로를 돌보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동네라는 건 일상 공간의 공유인데, 후평동에서 진행한 ‘호반 마음 브릿지’ 동네 관계형 모델을 통해 매일 마주쳤던 얼굴과 이름을 알게 되었고 눈인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번 사례로 몇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마을에 기존 활동 주체가 형성되어 있거나, 사업에 동의 하고 공감하는 지역 활동가가 있다면 주민과 접점을 만드는 데 수월하다는 결론이 있었고, 나아가 재단 차원에서 이런 사업에 공감하고 참여에 희망하는 활동가와 단체를 계속 키우는 것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동의 경우 간호사 협동조합과 협력을 맺었는데, 한 개의 단체보다는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동네 단위 관계 구축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을 묻는 정담회

사업의 총괄 담당자로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 집중할 것과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가 갖는 기능에 고민이 있었는데, 예술 심리치료와 이번 사업에 차이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현장을 찾았고, 커뮤니티 활동의 문화적 콘텐츠를 매개로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의 연결이 생기는 거죠. 만약 심리치료만 받는다면, 상담 후 해결 방법은 나만의 과제로만 남을 수도 있지만, 문화적 커뮤니티 활동이 동반된다면 연결감과 연대감을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 할머니, 할아버지지만 불리던 분들이 노래 교실 참여나, 동화책을 읽는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의 서사를 알아가고 서로의 이름으로 불리며 자기 존재감이 확인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과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끼고 그것에 관하여 편하게 이야기해도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년 동안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운영하며 들었던 생각이나 소회를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은 PM의 실무적인 고민은 사회적 처방 프로세스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인가, 우리 지역에 맞는 방법에 맞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내내 했었죠. 그래서 올해는 본래 사업 구조의 틀을 가지며 ‘춘천형 문화로사회연대’로 펼쳐 보았습니다. 그렇게 재단에서 직접 200여명의 참여자를 모집했고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시민의 많은 참여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며, 문화를 만든다는 건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과 분위기가 필요하고,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문화로 사회연대>는 ‘나 혼자만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살다보면 밀려오는 외로운 순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옆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 할 때 먼저 안녕을 물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네트워크(지역)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이사장

이선미

지금 운영하고 계신 ‘작은 도서관 까루’는 어떤 곳인가요?

‘작은 도서관 까루’는 춘천 후평동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까루’는 고대 영어로 ‘케어’라는 뜻이 있고 ‘돌보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로 ‘까루’가 가지는 철학입니다. 20년 전부터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이름을 바꾸고 시니어 어르신들과 성인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이곳을 시작으로 후평동 마을 안에서 여러 공간을 운영 중인데 다양한 교육과 돌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는 올해 춘천문화재단이 새롭게 시도한 ‘동네 관계형’ 모델로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속 2년째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시도해 봤던 시기였어요. 춘천은 문화도시 사업의 ‘도시가 살롱’이라는 주요 문화사업이 주목받았는데, 비슷한 결로 마을에서 이웃을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후평동에서는 마더센터와 작은 도서관 까루에서 4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해 보니 평가 과정에서 ‘너무 단기적인 사업이라 집중되지 못했던 게 아닐까?’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 더 많이 기획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올해 ‘동네 관계형’ 모델을 함께 기획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동네 관계형’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곳 후평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네 관계형’이라는 말 그대로 동네 사람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인데, 후평동이 가진 약간의 특성이 있어요. 저희가 호반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마을 돌봄 공간을 운영 중이라 여러 학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조손 가정의 할머니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통해 얼굴을 아는 이웃을 더 많이 만들자는 취지로 함께하게 되었고, 보통 ‘돌봄’이란 게 구체적인 행동을 가진 간호나 요양 서비스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돌봄’이라는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옆집 할머니가 오늘도 잘 계시는지 눈으로 지켜보는 것도 사실 돌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돌봄 특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 ‘엄마의 레시피’는 동네에 30년 넘게 요리 선생님이로 활동하신 분을 모시고 이주여성과 학부모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함께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호반 노래 교실’은 노래 교실과 웃음 치료가 결합한 형태로 보통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도 배우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종료됐지만 정이 많이 드셔서 지금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어요. 노래교실이 끝나면 동네 자원 봉사분들과 마을 밥상에서 요리해서 밥도 나눠 먹습니다. 현재 사업은 모두 끝났지만, 그분들이 공동체 마을 밴드에 가입하셔서 정보도 공유하는 플랫폼도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호반마음브릿지 - 호반 노래 교실



호반마음브릿지 - 엄마의 레시피



기존 활동과 춘천문화재단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시도한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 까루가 ‘동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돌봄 특화 프로그램 말고 저희가 운영하는 일상 거점 공간이 여럿 있어요. 그림책 도서관, 아이들 돌봄 공간, 마을 밥상 공간이 군데군데에 있는 특성이 있기에 저희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끝나도 동네 분들을 일상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중심에는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호반 어린이공원’ 있어요. 낮에는 어린이들이 많지만, 밤이 되면 모기향을 들고 어르신들이하나둘 모여 벤치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엉덩이가 배기니까 박스를 깔거나 스티로폼에 앉아계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석을 마련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폭신폭신했던 방석을 대여해드렸고 여름에는 보통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집에 있으면 에어컨도 전기세가 비싸다 보니 종종 공원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때 쓰실 수 있게 손 선풍기나 아이스 스킨프도 대여해드렸어요. 그렇게 한 분 두 분 나오셔서 의자에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번 사업으로 이분들과 많이 친해져서 이제는 일상적인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서 동네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들이 되게 반가워했어요. 그런 시선으로 당신들을 바라봐 주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아하셨고 사실 동네 할머니 중에도 ‘홍반장’ 같은 분들이 계세요. 김장철 되면 새우젓이 필요하니까,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서 공동구매를 주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을 챙기는 또래 할머니인 거죠. 이번 사업으로 ‘홍반장’ 같은 분들과 많이 친해졌는데, 그분 말씀이 본인도 나이가 많지만 죽기 전까지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노래교실에 참가하셨던 할머니 중에 두세 분이 초기 치매 단계세요. 그래서 매번 오는 노래교실 장소임에도 바로 앞 공원 근처에서 길을 헤매시는 거죠. 한 4년 전부터 만났는데 그때 만해도 괜찮으셨거든요. 너무 명료하셨는데, 마을 주민들이 알아채고 그분을 서로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노래교실 시작 전에 공원 근처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무사히 길을 건너오는지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참여자

심재희

춘천문화재단에서 운영했던 23~24년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2년 연속 참여 중이신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참여 동기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하다가 23년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당시 특별한 일이 없고 직장에서 퇴임을 하니 소속감이란 게 사라지고 마치 사회에 처음 나온 기분이라, 주변에 소그룹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로마 향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현재 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시간제 동반자로 활동 중인데, 작년 기억이 좋게 남아서 다시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운드와 관련한 프로그램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 시간으로 직장동료들에게 권유하여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는 늘 사람이 살잖아요. 저희가 동네에서 아이들 돌봄을 해보니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동네라는 건 결국 동네에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 힘든 거죠. 개인의 성격도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도 세지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맞대고 계속 정을 쌓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해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접점을 만들기 위하여 '홍반장' 같은 역할을 저희가 해보고자 많이 노력 중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계 리더로서 2년 연속 참여를 하셨는데, <문화로 사회연대>에서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 차원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기보다 마을 안에서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연결되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연결을 '연대'라고 생각하고 어떤 주제가 있다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에서 저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잘해야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대상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도 예전에는 그런 오류를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기획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문화로 사회연대>는 그분들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는 관계 리더의 매개자 역할, 그리고 사업과 마을 중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준 프로젝트 매니저들 덕에 마을에 있는 분들이 서로에게 더 좋은 이웃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참여해도 상관없었을 텐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을 해 보니, 동료 선생님들이 청소년들과 상담하며 상당한 스트레스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보였어요. 보통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업무 얘기만 나누지 그 이상의 관계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해서 <문화로 사회연대>라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직장 밖에서 만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고 동료들이 힐링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었고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참여를 권유했는데 동료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셨던 올해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인상적인 순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동료들 다섯 명이 참여했고 총 6회 프로그램이었는데, 회차마다 주제가 있었어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소리’, ‘내 추억의 소리’, ‘서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악’ 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는 소리를 각자 준비하고 모여서 서로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에 얹힌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쿠킹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라 몸에 좋은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며 친교를 다졌어요. 제게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직장에서 업무 관계로만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각자 추억과 관련된 음악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인생 어느 시점에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들의 후기도 궁금한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어요?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간만큼은 업무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더 친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각자 해야 할 업무와 책임이 있어서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일을 해도 외로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안부는 문지만 속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고, 말하지 못했지만 서로 좀 외롭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마련되니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고 일상도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직장에서의 모습과 직장 밖에서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았던 만남의 문화가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만남으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직장 안에서도 분위기가 이어져서 조금 더 화기애애하고 서로 더 챙겨주는 모습들이 보여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요즘 많이 보이는 직장 문화는 현실의 자신과 직장의 자신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네요.

맞아요. 저희도 다양한 연령층에 동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0대 청년층의 나이를 가진 동료의 변화가 제일 크게 느껴졌어요. 평소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참여할 것만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열의도 보이고 주변 동료들 칭찬이 많았는데 우리가 함께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가진 어려운 부분이나, 자신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오픈해 줬어요.

저희 업무가 청소년 상담이다 보니, 각자 말은 상담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는 것 보다 동료에게 조언을 얻어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그분이 직장에서 다른 분에게 부탁하거나, 어려운 점을 밖으로 꺼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 후에 직장 밖에서 관계가 친밀해지니 표정도 밝아지고 개인적으로 도움 줄 일이 있으면 가깝게 다가가게 되다 보니 직장 문화도 조금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참여 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자로서 참여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참여하며 동료들을 설득할 때 춘천문화재단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같이 ‘누려보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별문제 없어 보여도 사실 들여다보면 다들 각자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연대하고 싶거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와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시도해 보지 않는 건 손해일 수 있거든요. 요새 직장인들 보면 자기 비용을 지불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동아리나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로 사회연대> 같은 경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여러 사람들의 비용과 시간,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좋은 프로그램이니 마다하지 말고 그냥 누려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 안에서 연대감, 소속감, 누군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충분히 스스로 누렸다면, 프로그램을 떠나서 어떤 공동체나 가정, 학교, 직장, 친구들과의 사적인 관계 안에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도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마련되니 이야기도 편하게 나누고 일상도 자연스럽게 공유하면서 직장에서의 모습과 직장 밖에서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았던 만남의 문화가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만남으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직장 안에서도 분위기가 이어져서 조금 더 화기애애하고 서로 더 챙겨주는 모습들이 보여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건강한 지역사회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강원권

대상지역

강원도 원주시

주요대상

50세 이상 중장년, 60세 이상 고령층

주요내용

-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 및 사제리 보건소, 밥상공동체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에 집중
-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원주문화재단, 원주행복가득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요리, 공예, 뮤직스토리텔링, 음악치료 등 문화예술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운영
- 고령화 인구 및 농촌, 산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원격상담 적극 진행하여 대상자와 지속적 교류
- 의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회적 처방 등을 주제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교류 진행

주요 특징

- ‘사회적 처방’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올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연계한 사회적 처방 강화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촌 지역과 고령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 전달 서비스와 관리 체계를 구축
-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정식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속성 확보
- 사업 운영 공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 체계 구축, 적극 진행하여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대상자 발굴

-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 내 경로당, 종교기관
- 원주행복가득 작은도서관
- 사제리보건진료소
- 밥상공동체복지관

인문/문화상담

- 원주행복가득 작은도서관
- 헬스브릿지 (원격상담)

맞춤형 처방

- 원주문화재단
- 밥상공동체종합복지관
- 원주행복가득 작은도서관

● 협력네트워크 수

6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1

지자체

2

사회복지

1

의료보건

1

상담

1

문화(예술)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근거를 마련하다

‘사회적 처방’이란 1차 의료기관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당사자에게 의학적 처방과 더불어 비약물적 처방을 함께 처방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그들이 거주하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동호회와 같은 커뮤니티를 연결 해주어 사회적 교류를 확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8년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이후 2021년에는 일본에서도 ‘고독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외로움과 우울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 환경 위기, 팬데믹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은 국내 최초로 ‘사회적 처방’을 도입한 곳이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처방’에 대해 고민한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와 복지분야의 협력을 확장시켜 나가기도 했다.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 맞게 ‘사회적 처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짧은 온라인 사전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원주의 특별함은 바로 ‘원격 상담’**이었다.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과 내담자들의 환경, 비용 문제를 고려해,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원격 화상 상담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참여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인터뷰 키워드

사회적 처방

원격 상담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생각하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무엇일까요?

처음 들었을 때, ‘하나로 만들고 엮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의 선진화로 이미 보건과 복지 등 각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는데, <문화로 사회연대>는 문화를 중심으로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로 엮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야는 보건이지만 각 전문성을 가진 문화, 상담, 복지, 치료의 영역이 엮이고 활용되어 지역사회의 좋은 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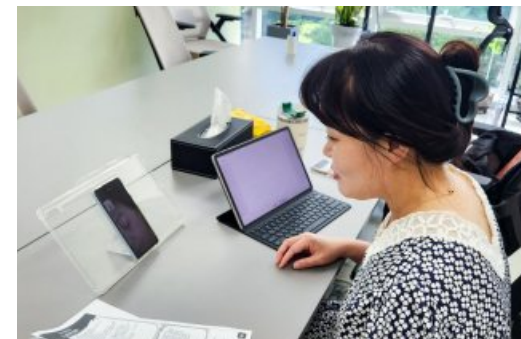
사업이 운영되는 총 9개 지역거점센터 중 2개의 대학교(산학협력단)와 7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문화재단과 대학교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 연구했던 보건·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처방’이 접목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지역사회의 공헌 가능 부분, 더 나아가 함께 했을 때 좋아질 네트워크 등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와 평가를 풀어가야 하는 게 저희의 취지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과 다르게 사업 운영에서 담당자가 바뀌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구축했던 전문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2019년도부터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중심축인 ‘맞춤형 처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종료 되면 같은 과정으로 연구팀의 전문 도구 및 평가 절차를 활용한 연구자료로 정리 할 계획입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기존 자원의 협력과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현재도 원주시청, 문화재단, 주변 네트워크의 융합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 사업 정책상 1년의 기간과 예산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으로 이어진다면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중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더욱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에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자원과 재원을 펼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하나로 엮을 방법과 고민에 많은 무게를 두었습니다.

현재 사업안에서 원주 지역은 원격 상담을 진행 중인데,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발굴입니다. 원주시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제공과 동시에 원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헬스 브릿지 소속 상담 전문가가 프로그램 첫 주에 원격 상담사는 어떤 사람인지, 왜 원격 상담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라포를 형성합니다. 매주 5~10분 정도 원격 상담과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대상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가 심리·건강 상태를 지표로 모니터링합니다. 6주~8주의 상담이 끝나면 대상자의 성향, 상담 결과, 향후 진행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작성하여 저희와 원주시청에 공유합니다. 필요에 따라 심화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추가로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면 원주 한림병원 정신의학과와 연계한 상담 및 자문 보고서를 기반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원주시 내 치료 시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의 원격 상담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한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업 참여자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야기할 사람과 기회가 적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짧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 3주 차부터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 주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도 원격 상담 중에 고위험 단계가 포착된 분들은 심화 과정으로 진행 중이라 짧다면 짧은 시간 속에도 하나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원격 상담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상담이 가지는 의미가 치료 행위와 연결되어 아직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주 지역도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는데, 한 명의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열 번 이상 발걸음했음에도 첫 주에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하는 원격 상담으로 안부도 묻고, 더 친해지려 노력하고, 문화프로그램 참여도도 높이며 유대관계를 쌓아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격상담이 가지는 ‘관계의 연결과 유지’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사이에도 관계의 연결고리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진행했는데, 서로 친하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그동안 혼자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요즘은 경로당에 모여서 반찬을 챙기며 식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허가 마련한 ‘훈장’ 제도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먼저 참여한 분들이 선임자 역할을 맡아 다음에 들어오는 참여자에게 안내도 도와주시고, 자원봉사도 하시며 유대감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추석에도 같이 일정도 보내며 시장도 가고 옆집 누구 어느 어르신이 연락이 없으면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는 일들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문화프로그램과 원격 상담을 통해 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야 할까요?

‘만남’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문화의 강점으로 ‘언어’는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잘 보였던 건 원주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외국인 참여자도 있었는데 여기서 ‘언어’가 장벽이 될 수 있었음에도 요리, 목공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소통할 수 있었고 해당 외국인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심리상태도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글로벌 시대에서 문화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도 ‘문화’를 매개로 ‘맞춤형 처방’을 진행 중인데, 사실 영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의 정책입니다. 약물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약물적인 치료 즉, 혼자 느끼는 고독감을 지역사회가 나서서 하나가 되는 문화로 치료하는 제도가 외국은 많이 정착됐었고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통하여 더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함께하는 지역 문화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네트워크(상담) 헬스브릿지 이사

최선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의 원격 상담은 무엇일까요?

심리 상담을 생각하면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대면 형태의 상담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상담 공간을 찾고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까지 고려하면 장벽이 높지만 <문화로 사회연대> 원격 상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1회, 5분~10분가량의 전화 및 화상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원격 상담은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고, 본인이 거주하는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우선 참여자가 그룹별로 모집되면 라포 형성을 위해 전문 상담사와 대면 그룹 미팅 자리를 갖고 원격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가 심리 평가를 하는데, 중증 군 혹은 위험군으로 포착 되신 분들은 심화 상담이 1시간씩 추가됩니다. 또한 매달 1회 심리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받는데, 보고에 따라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원주시와 함께 상의하여 치료를 돕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원격 상담은 대면 상담과 많은 점에서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신장년층부터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을 가진 참여자들인데,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상담을 말씀드리면 ‘내게 정신병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문을 열기까지 참 어려운데, 비용, 예약, 거리 등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대면 상담의 경우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원격 상담의 경우 비용의 절감, 움직임의 거리, 특히 집 안에서 편안하게 통화를 하므로 마음속 이야기를 훨씬 자연스럽게 꺼내서 비밀이 유지되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표정과 행동도 잘 살펴야 하는데, 원격 상담에서 보완하기 위하여 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서 참여자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고 실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종합적으로 상담사가 판단합니다. 이렇게 대면 상담과 원격 상담의 단점을 다방면으로 보완하여 진행 중이고 생각보다 반응도 좋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원격 상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첫 그룹 미팅에서 전문 상담사와 라포와 신뢰감이 형성되면, 사실 원격 상담 전화가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상담하기 좋은 일정과 시간을 미리 조율하는데, 약속을 잡고 처음 상담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부담스러웠지만 간단한 안부부터 시작해 차근 차근 상담을 거쳐 2~3주 차부터는 훨씬 더 편안하게 본인과 주변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원주와 같이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원격 상담은 왜 필요할까요?

비대면 진료의 가장 필요했을 때가 사실 2020년도 전염병 시기였습니다. 대면할 수 없는 상황과 부족한 정보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셨는데, 운동과 움직임으로 키웠던 몸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 센터에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와 같이 주변 산간 지역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의사 파업 같은 사회적 이슈로 진료받기 어려워지는 것도 지역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원격 상담을 통하면 최소한의 안부를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건강과 영양을 챙기며 제한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대면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제2의 전염병 사태가 올 수 있는데, 원격 상담이 자릴 잡고 더 많은 참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대처할 방법 중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상담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상담과 문화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담을 할 때 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화와 공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내담자가 가진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내면적인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담은 단순 문제해결을 떠나 참여자와 깊은 공감을 전제로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다양한 생각,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원격 상담을 진행하시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참여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어렵지 막상 그룹 미팅에서 관찰되는 상태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전문 상담사와 원격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 이상으로 중증인 분도 있습니다. 해당 참여자는 유지보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심화 상담을 진행했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을 통해 상담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원격 상담 과정 중에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중증 군이 많이 포착된다는 점만으로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문 원격상담가로서 <문화로 사회연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희는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돕는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돌보고, 문화를 매개로 사회 참여를 꿈꾸며 같이하시는 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결국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참여 등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더 힘든 분들을 도와가는 과정을 배우고 실행하며 당사자의 성장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가 매개가 된다는 건 굳이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교류하거나 소통하며,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훨씬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 상담 그룹 미팅에서 풍선 놀이를 잠깐 했는데, 같이 웃고 떠들며 그림을 그려 본인 소개할 때도 참여자 개인이 가진 환경과 다양성을 편견 없이 이해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통한 전문 원격상담가로서 무엇을 꿈꾸고 계실까요?

사실 치료를 해야 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상담을 진행하며 중증군, 위험군이 포착될 때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스스로 마음 근육을 강화하며 일상을 유지하기 좋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노인층이 계속 많아지니 사회는 점점 더 고독할 수 있는데, 중간군과 노화 및 소외 계층 참여자에게 사업이 좀 더 확장되는 기회가 온다면 스스로를 단련시킬 힘을 기르고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은 사회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여행을 위한 항해

군산문화재단 전북권

대상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주요대상

군산시민 및 청년, 중장년

주요내용

- 거점센터 자체적으로 ‘킵오프데이’, 외로움과 고립에 관한 자조모임, 포럼 등 마중물 프로그램 기획
-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을 지역 내 민간 상업 공간과 협력하여 목공예, 무용, 낭독회, 그림책 테라피 등 진행
- ‘팟캐스트 유스데스크’, ‘세대공감 여행프로그램 낭랑투어’와 같이 거점센터에서도 맞춤형 프로그램 자체 기획하여 운영
- 심야마음돌봄인 ‘심야마음병원’을 운영하여 야간시간 인문상담 진행

주요 특징

- 2023년 설립된 신생 문화재단으로 지역 내 자원과 협력네트워크 확보에 집중하며 마중물,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였고 이를 통한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강화
-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과 연계, 낭독회나 시낭송, 강연, 그림책을 활용한 테라피 등 지역자원들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활동 시간대가 다른 지역민들은 상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시간(~22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 ‘심야마음병원’을 통해 대상자 발굴 추진

대상자 발굴

- 군산시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군산모자원 외 사회복지기관
- 호원대학교, 군산대학교 외 교육기관

인문/문화상담

- 마음봄날 심리상담센터
- 마음다락 심리상담센터

맞춤형 처방

- 한길문고, 그림산책, 마리서사 외 지역 내 서점, 우만컴퍼니(출판사)
- 군산시종합사회복지관, 군산여성의전화 외 사회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공간 연계

- 소통협력센터, 청년뜰 외 지자체 기관
- 지역 내 서점, 사회복지기관에서 맞춤형 처방 및 공간 제공

● 협력네트워크 수

26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1

지자체

7

사회복지

3

상담

15

문화(예술)

지역에서 연결지점을 찾고 연대의 과정을 발견하다

군산은 전라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서해안의 항구도시로, 충청남도의 장항, 서천과 연결되어 있다. 금강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군산은 넓은 호남평야를 뒤로한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근대 문화유산 건축물이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하다. 관광지로서 구도심의 역사적인 매력을 간직한 반면, 해안가 근처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외곽에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신도심의 모습도 함께 공존하는 도시이다.

군산에서 진행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특히, 2023년 말에 새롭게 설립된 ‘군산문화재단’은 지역 내 신생 단체로서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다. 군산문화재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단이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경험케 하고, 재단만의 차별성을 통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군산 내 다양한 지역 자원 가운데 민간 기관, 특히 **‘독립 서점’이 네트워크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군산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김지은 담당자는 사전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군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자뿐만 아니라 **군산 내 여러 지역 자원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인터뷰 키워드

협력네트워크

상담 치유

군산문화재단은 23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첫 진행인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무엇인가요?

군산의 경우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보니 재단의 존재성을 처음 알리는 것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안내하였고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협력 단체 간의 관계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협력 네트워크 관계자, 프로그램 참여자, 강사님들과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여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장기적으로 지향해 볼 수 있는 지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가 활발해 보입니다.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의미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군산에서 북페어가 열렸는데, 군산의 다양한 문화 자원 중 지역 내 서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서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보다 폭 넓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이번 사업에 함께하게 되었고 참여자 모집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공간 제공까지 같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화 나누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가져보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문화예술 강사, 지역 내 서점이 모여 관계를 맺고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이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명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존에 군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관으로서도 부담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역 기관과 서점들도 이미 올해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무언가 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결국 너무 좋았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복지 기관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재단이 기획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결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복지 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맺고자 설득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했는데, 그동안은 단순 미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국한되었다면 문화재단이 제안했던 목공예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일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별점을 피력하였고 그 지점에서 우려되었던 부분은 함께 하는 과정에서 많이 풀렸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이전과 이후를 살펴볼 때, 사업 변화를 느끼는 지점이 있을까요?

사업의 담당자로서는 참여자분들의 긍정적인 후기와 행복해 보이는 뒷모습에서 사업 운영에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고, 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문화로 사회연대>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역으로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고, 이전 타 사업 같은 경우 기관과 기관이 만나면 단발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화로 사회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장선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업의 담당자로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분에게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사업이지만 문화를 매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설령 결과는 미비하더라도 참여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순간에 갖는 행복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문화’는 왜 매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제가 이 질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면 ‘공평’과 ‘평등’이 떠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같은 재료와 시간을 공유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요소를 배제하고도 평등하게 만나서 지식을 습득하거나 무언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에서 문화는 매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인터뷰에서 <문화로 사회연대>로 하여금 참여자 본인이 살고 있는 군산 지역의 매력을 조금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고향의 매력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가진 이들에게 지역의 매력은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사실 제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 외로움과 우울함을 지닌 분들은 외지인보다 본인이 사는 지역을 좋아하지 않는 듯합니다. 오랜 시간 한동네에 살아왔고 익숙하게 다녔던 길 위에서 보는 많은 것들에 담긴 경험과 시간이 사실 긍정적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좋지 않은 기억이 대부분이라 사람을 피해 혼자 집안에서 지내며 우울한 감정도 더 깊어지는 경우를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서 한 발짝만 밖으로 나와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어두웠던 기억을 환기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지역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생각하는 군산이 가진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고향은 목포인데 사실 군산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경험상 군산의 매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 같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참여자들과 팟캐스트를 만드는 중인데 인상 깊었던 대답 중 하나는 ‘군산은 시공간의 밀도가 굉장히 널널한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지역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갑갑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군산은 다른 지역보다 밀도가 낮아서 사람이 살기에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군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네트워크(문화예술) 서점 그림산책 대표 이은진



서점 ‘그림산책’은 <문화로 사회연대>와 무엇을 함께 하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나요?

저희 서점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하는 군산 지역 9개 서점 중 한 곳이고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환상의 낭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요리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림책 테라피’ 2회를 운영했는데, 요즘 1인 가구와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살아도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모여서 짧은 시간에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림책을 나누고 느낀 점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될 거 같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요리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비틀비틀 아저씨’라는 동화책과 ‘파랑’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선별한 음악과 함께,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동화책 주인공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게 없음에도 계속 넘어지고 구겨지는 것처럼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누었고 아이스크림 한 개로 위로받는 장면에서는 별것 아닌 작은 것에 마음이 치유되는 순간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참여자 후기가 있을까요?

인상적인 후기는 ‘나는 늘 눈에 띄고 싶었고, 어딜 가도 빛나는 사람들이 부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참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되었고 싱어송라이터 ‘파랑’이 요리한 격식이 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접받고 환대받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에 자신이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춤형 처방 ‘요리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림책 테라피’

‘요리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은 이미 운영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역 자원으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자체 운영했을 때 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1회씩 진행해 볼까 했는데, 마침 군산문화재단의 <문화로 사회연대>사업 제안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점을 운영하며 많은 기획이 있었는데 때마다 모집이 너무 안 돼서 서점 운영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가 군산문화재단의 홍보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그림산책’ 서점이 지역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산책’ 서점은 지역사회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그림산책’이 지역에서 그림책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곳에서 그림책 길잡이를 찾기가 쉬우므로 그 이상의 것을 제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네 서점을 가는 이유 중 하나는 공간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서점의 큐레이션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이 꽂혀 있어도 어떤 책이 좋은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서점 주인으로서 정말 좋다고 생각되거나 두고두고 봐야 할 만한 책을 진열하여 지역 사람들이 그 책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서점 ‘그림산책’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일러스트작가로도 활동 하기에 그림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찾는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로 사회가 연대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문화와 예술이 주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림책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는데, 그림책이라는 건 짧은 순간에 많은 걸 담게 하는 매체라서 바쁜 현대인들에겐 ‘그림책 읽기’가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지역에서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책, 음식, 그림 같은 다양한 활동이 모임이 되고 배우고 나누는 계기가 되어 사적인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점 ‘그림산책’ 대표가 생각하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무엇이고 왜 문화로 사람들이 만나야 할까요?

이 사업은, <문화로 사회연대>가 아니었다면 절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동안 몰랐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시대나 예술이 주는 힘은 항상 있었지만 사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오래된 영화와 음악이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좋다고 느끼는 건 문화는 시대를 넘어 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삶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심야 마음 돌봄’ 프로그램으로 참여했고,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 우울함이나 불안, 공황장애와 같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전문 상담사로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역할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드는 것’처럼 한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회적 어려움으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으로도 사회와 가정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마음 돌봄’으로 여러 참여자(내담자)를 만나셨는데, 인상적이거나 느끼는 바가 있으셨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심야 마음 돌봄’ 프로그램으로 두 달 동안 4~5회의 상담을 진행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난 분들은 심각 단계 이전 대상으로 대부분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나 마음에서 어려움과 힘들어 보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서 그런지 상담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느껴졌는데,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주변 상황을 좀 더 개선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탐색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혼자 고민된다면 주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사회를 개척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상담을 통한 만남으로 표정의 변화나 내면의 힘에서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느껴질 때 상담사로서 보람도 느끼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심야 마음 돌봄’의 상담사로서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연결자의 관점에서 사업에 기대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1대 1도 상담도 중요하지만, 다수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활동과 집단 상담에 대해서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숲으로 나가거나, 자기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체험활동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다양한 활동이 사업안에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좋겠고 늦은 밤까지 외롭고 고립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번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담의 회기가 조금 짧은 게 안타깝습니다. 위험 단계로 넘어가기 전 최소 10번의 상담이 마련되면 좋겠고,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조금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에 상담이 접목된 긍정적인 인식의 길을 더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에서 ‘문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라는 건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 농사를 지은 게 ‘품앗이’ 문화가 되고 ‘노동요’가 생긴 것처럼 문화는 노동도 될 수 있고, 누구와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연대감’이라고 부릅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요즘 개인주의가 높아져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지지와 격려를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세요?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때,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화가 돼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요구와 기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특히 고립되고 외로움을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이런 심리 지원 서비스에 관심을 둔 게 그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전남권

대상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주요대상

영암군민 및 청소년, 청년, 고령자

주요내용

- <마음:뜨개> 거점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적 처방 프로그램 기획 및 연계, 협력 운영
- 시나브로아트, 트로트 환장파티, 오수의 뜰, 감성필사, 다감여락 등 전남의 지역자원, 자연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마중물 프로그램, 맞춤형 처방 진행
- 전남 지역의 행사와 연계하여 일상에서 누구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리는 인식 제고 캠페인, 마중물 프로그램 운영

주요 특징

-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구소멸, 동네 간 거리, 인구밀집도)을 고려하여 이동 수단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유도
- 전남 지역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치유, 문화 활동이 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주로 활용한 마중물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 및 지속적 참여 요구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재단에서 운영하는 <마음:뜨개> 공간이 지역에서 정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해나가는 데 집중

대상자 발굴

- 영암군 희망복지팀
-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림공고wee센터
- 세한대학교
- 영암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외 마을회관, 면사무소 등 지자체 기관

인문/문화상담

- 영암정신건강복지센터
- 모은심리상담센터

맞춤형 처방

- 나주산림치유센터
- 담양문화재단
- 전남지역 내 미술관, 박물관, 문화지소

공간 연계

-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
- 유휴협동조합 외 지역 내 민간 기관, 단체 등 공간
- 지역 내 마을회관, 읍사무소, 미술관, 박물관 등의 지자체 공간 및 문화공간

● 협력네트워크 수

30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8

지자체

3

사회복지

4

의료보건

1

상담

2

교육

1

시민단체

9

문화(예술)

2

기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에서의 연결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

영암군의 면적은 612.56㎢로 서울의 면적(605.2㎢) 보다 더 넓지만, 인구는 51,471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인구 9,350,995명(2024년 9월 기준)의 181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구밀도의 차이는 두 도시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구조와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업 구조와 직업군이 크게 다른 만큼,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또한 도시마다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 도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참여자들에게 접근하는 문제다. 영암군처럼 넓은 지역에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흩어져 있는 지방 도시의 경우, 지역 인프라의 한계로 자가용이 없으면 마을 밖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영암군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영암군은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며 올해 처음으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암문화관광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에 있었다. 단순히 참여자를 발굴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자원과 협력하며 더욱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참여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 도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영암만의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키워드

협력네트워크

마음:뜨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첫 <문화로 사회연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그동안 문화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관과 협력 체계를 이루고자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하는지 업무 체계의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더불어 각 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 소속 활동가의 역할을 파악한 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였고, 특정 대상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인식 제고 캠페인과 사업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과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 봉사단체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 봉사자와 단체를 만나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전남 지역 읍, 면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아 지역민의 일상을 돕는 ‘생활개선회’, ‘고향을 사랑하는 모임’, 그 외 자원봉사 단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사업의 취지와 활동가의 필요성을 알리며 각자 마을에서 활동 하실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 즉 대상자 발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사회연대> 활동가 섭외 시 대상자와 활동가의 만남이 낯설지 않도록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며 관계를 쌓은 분들이 지역과 사업의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협력하게 된 협력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봉사기관, 지역 봉사단체 그리고 예술 처방의 역할을 맡은 지역 미술관과 예술단체가 있으며, 전남지역은 자연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가 발달하여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 치유센터’와 ‘전라남도 마음 건강 치유센터’, ‘나주 빛가람 치유의숲’, ‘담양 딜라이트’, ‘나주 우주 드림’등 자연에서 힐링과 예술 문화를 접하는 코스를 발굴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우울함의 미학’은 ‘마음 건강 치유센터’와 협업하여 영암과 장흥에서 두 번 진행하였고, 담양분들을 순천으로, 장흥분들을 담양으로, 영암분들을 담양과 나주로 운영했기에 마을 공동체, 사회단체 소속의 견인 코디네이터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를 도와 프로그램 모임 장소로 이끌어주시기도 했고 협력 기관의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있었기에 ‘누리는 마음 전환 문화’가 가능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새롭게 알게 된 기관과는 내년에 함께 연계할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맺는 과정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처음엔 사업 대상자 발굴과 수요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명같이 협력 기관과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각 기관이 발굴한 대상자와 이미 설계된 프로그램이 보유된 상황에 향후 역할과 활동이 중첩되지 않도록 기존 콘텐츠를 파악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관 협업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나 실제 사례나 결과가 아직 없다 보니 재단으로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맞춤형 문화 처방이 있는 마중물 프로그램을 기관에 제공하고 연계하여 사례를 만든 뒤 내년에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전에 근거를 조금씩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반복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자극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감여락’, ‘마인드어싱’, ‘예술로 맘달게’를 주축으로 해안, 내륙지역 분들과 힐링 문화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고립 지역을 벗어나 다른 시선과 생각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살며 몰랐던 장소와 공간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접점의 기회로 소통하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끝으로 해외유학생과 문화소외지역 아동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마음 뜨개’ 공간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뜨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새로운 만남과 소통 공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겨울나기 프로젝트인 ‘뜨개’와 ‘필사’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사업을 운영하며 저희 사업을 인지하시게 된 기관과 참여자의 만족이 운영에 대한 기대를 모았고,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협력 기관들은 내년에 참여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처방 ‘다감여락’



마중물 프로그램 ‘<마음:뜨개> 홍보 부스’

다양한 구조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영암문화관광재단에는 결국 무엇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통합적 생각 할 때 영암문화관광재단의 ‘마음:뜨개’는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생긴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보가 없다면 더 깊숙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남 지역이 가진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원으로 다양한 문화시설, 축제, 예술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 복지 차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다양한 복지기관의 데이터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설령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지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역 곳곳에 있는 다양한 자원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로 구축된 네트워크지만 사업을 넘어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참여와 같이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암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라 정신과 마음에 이상 신호가 생겨도 편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내가 우울증인 걸 누가 알아버리면 어쩌지?’ 같은 두려움인데, 의학적인 처방과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의 병이라고 인식하기보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회복되지 못하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경계심 없이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전환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성되면 스스로 밖으로 나와야 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전에는 ‘생활에 스며드는 예술’을 고민했다면 지금은 ‘문화로 소통할 기회’의 제공’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담당자로서 <문화로 사회연대>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업일까요.

캠페인의 슬로건인 ‘가장 보통의 외로움’같이 누구나 외로울 수 있다고 편하게 말하는 시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단계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람하는 콘텐츠로 개인화된 일상에 새로운 관계망의 결여와 소통의 부재로 우울함과 외로움이 고여 있다면 결국 심각 단계에 이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망 형성이 어려울 때 함께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소통의 기회와 방법을 새롭게 전환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제는 사회가 마주하고 협력 정책으로 풀어내어야 합니다. 본 사업의 강점은 네트워크입니다.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만 관리되는 것이 아닌 일상의 문화로 정착되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만남의 기회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이 구조의 매개 역할이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내가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 마음의 위안을 찾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만나는 발견의 시간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문화로 사회연대>에서는 왜 ‘문화’가 매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문화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떤 막막한 상태에서 기분의 변화를 주고 환기를 하고 싶을 때 매개체가 필요한데,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발견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의 다양한 요소 중 자신이 관심을 두었던 소재를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양한 여가와 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변화 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무엇일지, 사회적 규범이나 규정된 교육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문화적 처방으로 매개가 되어야 합니다. 우울함과 외로움,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과 결부되어 의료, 복지 분야로 한정된 대상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에서의 위안과 위로, 새로운 환경과 행복감을 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견인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 시대의 문화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춤형 처방 ‘다감여락’

<문화로 사회연대> ‘마음:뜨개’ 활동가 참여동기와 상담가로서 역할이 궁금합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20여 년 하고 퇴임을 한 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다가 영암관광문화재단에서 ‘마음:뜨개’ 심리상담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지역사회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평소 마음 건강과 상담 분야에 관심이 높아서 현재 소지한 상담 자격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가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 즉 우울감과 고립감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소개받아 심리 상담과 함께 적절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셨던 심리상담은 어떠셨나요. 자세한 상담 내용을 전해주시긴 어렵겠지만 상담 과정 중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 번의 심리상담을 진행했는데, 캄보디아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출산 한 여성이었습니다. 언어와 관련하여 가족 간 소통 문제로 우울감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녀를 위해 상담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건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침체하면 외부 활동이 적어지고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이어집니다. 영암은 편하게 걷는 산책 코스가 많아서 함께 걸으며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딸에게 해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보니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걷기’ 다음에는 ‘수영’을 권했으며, 약 6개월 뒤에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는 직업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여기서 저는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점이 우울감과 고립감으로 연결되는 지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 그녀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감정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외로움 같은 감정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 직장이나,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하며 이겨내기도 하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사실 탈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쌓이고 마음의 우울감이 더 심해지면 몸이 아픈데,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즐거움과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 필요하고 또 누구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현장에서 심리 상담가로 참여하시며 개선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역의 상담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상담의 회기나 기간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더 많은 상담 활동가가 발굴되고 다양한 지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능기부에 뜻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다른 상담사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영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담사 양성 교육’ 혹은 ‘역량 강화 워크숍’이 생기면 더 많은 분이 지역의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방면으로 어우를 수 있게 상담과 예술 영역의 활동가가 팀을 이뤄 지역 축제같이 큰 행사가 아닌 면 단위의 마을로 작은 소규모의 공연이나, 젊은 층을 위한 행사, 혹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한 편이라 간단하게 책을 읽어드리는 프로그램도 기획되면 좋겠습니다.



영암관광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과 어떻게 연을 맺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즈음, 아이들의 체험 위주 교육에 반대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영암관광문화재단 김정연 팀장님이 그 글을 보고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과 함께하게 되었고 이번에 장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마음:뜨개’ 홍보부스 캠페인 체험 행사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실감나무’라는 컵 받침 제작과 더불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일상 주변의 것들을 엮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선물이 될 수 있게 꽃다발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지역의 활동가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과정에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면 단위고, 한정된 기반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처럼 다른 지역 활동가들과 연결되는 고리가 필요할 때 관련 정보 및 예산 부족으로 이동의 어려움과 강사 및 활동가 초빙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처럼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 전남지역의 해남과 화순, 보성 쪽에 저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강사로 초빙하거나, 참여해 보고 싶을 때 행정의 한계로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의 재능기부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데, 행정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족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문화’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문화는 어떤 방식으로 연결고리 작용을 하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 생각에는 일상이 주는 아름다움의 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교감을 통하여 움직이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로 연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에서 얻어지는 보통의 것들이 참 귀하다고 여길 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교감과 공감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되며 저조차도 공감되지 않는 문화에는 움직이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주는 힘이 제가 하는 활동의 뒷심인데, 저는 일상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에 매우 많은 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보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즐거움과 기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 ‘가장 보통의 외로움’에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의 고독감과 외로움이 한 개인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깊게 빠져버린 외로움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빠져나와야 할 사람도 자신이기에 스스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깊은 고립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몸과 마음에 새겨놓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축축하고 안전한 관계망

포항문화재단 경북권

대상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송도동, 오천동, 우창 · 장량동

주요대상

지역주민, 중장년 남성, 취약계층, 청소년

주요내용

- 행정, 복지, 문화 분야 등의 정책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 3개 지역거점 (송도, 우창/장량,오천)을 중심으로 문화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형 ·처방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연결망 확립
- ‘연결자’ 발굴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지역자원을 매개할 수 있도록 추진
- 커뮤니티 아트 케어 프로그램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복지센터에서 상시 운용 가능 시스템 구축하여 일회성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아닌 생활권 동네 거점을 기반으로 거점별 활동 공간 중심 프로그램 운영

주요 특징

- 지역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복지 영역의 연계와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런 연속성상에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통해 변화 시도
- 기존 문화향유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내 교류 확장 및 문화적 자원을 연계한 생활권 공간 중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 사회 내 문화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성 공론 확산

대상자 발굴

- 포항시 복지정책과
- 창포종합사회복지관
- 이웃사촌복지센터
- 포항시가족센터
-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술가(연결자)

인문/문화상담

- 창포종합사회복지관
- 이웃사촌복지센터
- 포항시가족센터

맞춤형 처방

-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술가(연결자)

● 협력네트워크 수

21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4

지자체

10

사회복지

2

상담

3

문화(예술)

2

개인

누군가와 어떻게 같이 살아볼까, 고민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간다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포항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포항의 도시구조가 불러온 도시 전반의 사회문제들을 진단하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 안전망’ 사업은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자원들(기관, 예술가, 단체 등)과 연대가 선행되어 있는 만큼, 더 촘촘하게 포항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화 연결자’들이 각 동네를 직접 탐색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내 카페, 책방, 예술가 작업실, 심리 상담소 같은 다양한 공간이 공동체의 거점으로 기능했다. 사업 기간 동안의 만남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이 구상되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 연결자(예술가와 예술 단체 등)’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며 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문화 연결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의 기회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 키워드

동네관계망
협력네트워크
연결자



포항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사업의 총괄을 맡고 있고, 포항의 송도, 오천, 우창·장량동 3개 지역의 연결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운영했던 연결자 워크숍은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학습했는데 ‘사회적 고립의 개념’, ‘포항의 사회적 고립 형태’를 탐색하였고 지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포항 지역 사회가 가진 사회적 고립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의 방향성을 찾는 것과, ‘사업 종료 이후 참여자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과, ‘지속적인 연결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을 풀어나가셨어요?

첫 번째 ‘포항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해결 방법의 필요성을 느꼈고 지역별 연결자 2명씩을 구성했는데, 그 역할은 우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동가를 찾는 것으로 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는 활동가를 통하여 동네가 가진 사회적 고립을 파악했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첫 번째와 연결됩니다. 저희가 동네 활동가를 찾은 이유는 정책 사업은 한시적인 기간으로 운영되기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맺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과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떠나 내가 사는 동네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연결성을 갖는 데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동네의 공간은 무엇이 있고, 활동가의 섭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공간은 다양했습니다. 카페, 책방, 심리상담 연구소, 예술가의 작업실 그리고 이전에 포항문화재단에서 ‘문화 도시 사업’을 하면서 일상의 문화공간을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삼세판’이라는 공간 사업을 운영했어요. 공간 ‘삼세판’은 개인의 공간이지만 다양한 시민을 위해서 열어두기로 인증 한 곳인데, 이 공간들도 활용하였고 동네의 활동가는 알음알음 소개를 받거나, 공간 ‘삼세판’을 찾아가 공간의 운영자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동의 한 카페에서 회의하다가 우연히 카페 사장님이 이런 활동에 관심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하기를 제안했을 때 ‘예전부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피부로 느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활동가와 회의를 진행했을 때 활동가가 갖는 고민의 깊이가 사업 취지와 맞닿아있다고 생각한 건 이미 사업 종료 이후를 너무나 걱정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번 사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단 차원에서 다른 만남과 연결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로 사회연대>의 마지막 과제는 ‘지역의 맵핑’인데 사업 종료 이후 동네의 공간과 사람을 정리하여 언제든 찾아가 만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공간과 활동가를 찾아가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동네 구심점 역할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기 때문이죠. 나의 생활이 이뤄지는 곳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동네 안에서 안전한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당사자는 사실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가지 않고 동네 가까이 내가 편하게 갈 곳이 있거나,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주는 안정감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역의 관계망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활동가를 연결하는 연결자도 있었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연결자의 역할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 우리 지역이 가진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더 많은 연결자를 배치하고 싶었는데 사업 규모에 맞추다 보니 구조상 2명씩 짝을 이뤘고 기대했던 연결자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에 ‘문화도시 포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많은 지역 예술가의 참여가 있었고 그때의 경험이 <문화로 사회연대>로 연결되어 지역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고민과 학습에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올해 종료되지만, 연결자의 관계는 이어진다고 봤을 때 연결자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있을까요?

연결자 워크숍

저는 연결자와 활동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네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업은 수혜자 혹은 대상자 발굴에 중요도를 두기도 하지만,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건 ‘연결자’나 ‘활동가’임을 올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크게 느꼈어요. 이유는 이번 사업의 목적이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서 프로그램과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인 거죠.

그래서 연결자와 활동가의 역할로 사업이 보다 풍성해진다면 성장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형태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개별적인 양상에 관해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고 더불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연결자의 활동 범위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품을 팔아야 하는데 대상자 발굴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연결자의 매뉴얼은 없기에 일반 문화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연결자 역할의 중요도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의 총괄 PM으로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큰 관점일 수 있는데, ‘지역 사회의 운영체계를 변화시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누군가와 어떻게 같이 살아 볼까?’에 대한 고민은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사업인 거 같고, 그게 단지 사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그렇게 바꿔 나갈 수 있어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결국은 서로를 돌본다는 게 지역사회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본다는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이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구성원 역할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결자 아트플랫폼
한터울 대표

이원만

포항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연결자로 참여하셨는데 어떤 역할과, 태도를 가지고 함께 하셨을까요?

제 역할은 그야말로 연결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와 외로운 사람이 안전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제 태도였어요. 예술가가 작업 할 때 보통 영감이라고 하는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만나기 때문에 연결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고. 타인의 아픔에 닿으려는 진정한 마음이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은 포항 남구 송도동인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형 프로그램을 기획했었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은 내가 사는 마을에서 마음을 의지 할 자연, 공간, 사물을 찾아 외로움을 덜어내는 프로그램이고. ‘삼삼호호’ 라는 프로그램은 중년, 노년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삼삼오오 그룹을 만들어 동네에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이웃과 안전한 관계망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처방형 프로그램으로 ‘우아한 나 혼자서도!’가 있는데 자기돌봄이 필요한 성인 누구나를 대상으로 송도의 솔밭을 걷고 명상도 하고 심리 치료도 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와 활동가를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낯선 사람들의 만남이잖아요. 누군가의 소개로 오거나, 주민센터 추천으로 오거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접촉이라 만남 자체가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접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 전에 자리를 마련하여 프로그램 과정과 지속적인 참여의 권유 등 ‘사전 만남’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만남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각 활동가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때문인지 보통 첫 시간에서 관찰되는 서먹함이나 어색한 분위기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것들이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생각합니다.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만남’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안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치안’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만났을 때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고 나의 기분과 사생활을 말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공감과 아픔에 대한 지지를 받았을 때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연결자로서 참여하시며 예술가의 관점으로 인상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고, 대본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에서 ‘이건, 그냥 대본인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삶이 곧 예술이다’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만난 분과 인연이 깊게 닿아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의 화단, 거실, 부엌을 보면 정말 깔끔하고, 내오시는 음식도 아주 맛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삶을 잘 가꾸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내면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부분도 보여요. 그 상반되는 느낌에서 그분의 삶 자체가 예술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예술가로서 개인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보듬는 일에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전에 고래가 쓰레기 매립장에 생활 폐기물로 버려진 사진 한 장을 본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래의 마음과 기분이 어떨지 헤아리다 보니 바다생물에 관심이 커졌고 뮤지컬이나 판소리 같은 공연으로 만들어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외로움을 겪고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을 이웃과 연결해 주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인간 중심적인 세상에 거부감이 있던 제가 ‘맞아. 고래하고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누군가 아프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던 게 스스로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사업의 의미를 깨달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고민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결자와 만남을 이어오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만남과 활동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예술가들과 더 깊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갈증이랄까요? 안타까움과 감동이 동시에 느껴진 것 같아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많이 헷갈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결자와 활동가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개념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다면 주제와 흐름이 더 촘촘하게 이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연구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짜인 프로그램이 그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 지점이 만났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다음날 진행하는 프로그램 장소가 야외인데, 비가 예보되어 하룻밤 사이에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했어요. 한편으로 ‘실내에서 같은 구성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밤새 회의를 한 활동가에게 전화가 온 거죠. 변경된 구성으로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다루며 어떻게 서로 돌볼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결국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로 사회연대>라는 사업이 지역의 활동가와 예술가가 만나 마음을 담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어요?

저는 동화 작가로 활동하며 출판사도 운영 중이라 포항문화재단과 이전부터 교류는 있었습니다. 작년 ‘연락하렴’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때 경험이 동화 작가인 제 작업에도 반영되어서 개인적인 성장이 있던 한 해였어요. 그동안 제 작품의 경향이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런 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키워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단에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제안이 왔을 때도 고민 없이 승낙했어요.

작품으로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을까요?

결국 ‘외로움’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은 옛날만큼의 공동체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같이 놀 때 재미있고 함께하는 것에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의 차원으로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거나 치유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의 연결자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대상자와 활동가를 발굴하여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외롭거나 고립감이 있는 대상자를 찾았고 활동가는 이번 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사업이 끝나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분을 발굴했습니다. 예방형 프로그램 경우 지역 특색에 맞게 기획했는데, 보통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모입니다. 제가 맡은 우창·장량동은 자녀가 성장하여 도시로 떠나면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분이나 은퇴를 앞둔 중년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시’를 다뤄 서로에게 마니또가 되어주고, 대학가 주변 1인 가구 청년에게는 예술매체와 심리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및 관계성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처방형 프로그램의 경우 고립감이 심한 2개 지역을 정하여 영구임대주택 주민과 장애인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활동가의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했는데 ‘외로움’과 ‘고립’의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사업 종료 후 관계망 형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맞춤형 처방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이웃’



연결자와 활동가는 이번 사업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거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업과는 또 다른 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높은 공감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외로웠고 고립감이 심했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홀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결국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타인의 존재가 필요해요. 저도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고, 공간 운영자나 활동가가 겪은 비슷한 감정과 경험으로 대상자의 상황에 많이 공감하세요. 프로그램 현장의 모습을 지켜보면 그런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연결자로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참여 하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시니어 활동가와 영구임대주택 거주 대상자분들이 함께했던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이웃’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대상자분들은 보통 홀로 집에 계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오셨어도 다른 분들과 같이 있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정말 서먹한 분위기였는데 마지막 시간에 화분에 반려 식물을 심는 활동을 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려워하면 서로 도와주고 과정 중에 손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몽클했어요. 소감을 나누며 ‘친구 보러 나왔다’, ‘이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이제는 단지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고 전화번호도 교환하셨다 하더라고요.

<문화로 사회연대> 연결자로서 참여하시며 들었던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정말 심한 분들은 어딘가 꼭꼭 숨어 있어서 저희가 찾기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찾았다 하더라도 저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순 없거든요.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설령 어렵게 나왔더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문화로 사회연대>나 프로그램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용기를 내신 분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요? 막상 어렵게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기보다 우리라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치유는 어렵더라도 전문가나 기관에 연결 시켜드릴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의 역할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안녕? 나와 볼, 마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권

대상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주요대상

경남 지역 내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이주노동자

주요내용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 동네의 활동가 등 인적자원과 인문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자원, 공간자원 등 데이터 구축
- ‘문화로 연결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활동가들이 직접 인문, 음악, 미술, 무용 등의 마중물 프로그램 개발·운영
- 경남 지역 사례 공유를 위한 회의, 포럼 및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확장을 위한 캠페인 개최
- 진흥원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구조를 만들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화공간 만개’가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

주요 특징

- 다층적 협력구조(복지·정책·마을공동체·청년·주거 행복지원센터·평생학습센터 등)를 형성하며 지역 내 문화생태계의 확장을 이룸
-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발굴, 연계하여 ‘문화로 연결 활동가’를 기획,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돌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자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학습을 위해 강의, 토론, 공동체 학습 등 프로그램 진행
-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대상자를 찾아가는 복합문화예술활동 ‘따숨이들의 방문’ 진행

대상자 발굴

- 창원복지재단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 경남청소년지원재단
- 창원청년비전센터, 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
- 주민자치회 외 대상 지역의 통·반장

인문/문화상담

- 창원청년정보플랫폼
-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맞춤형 처방

- 문화공간 만개

공간 연계

- 문화대장간 풀무(문화공간 만개)
- 동남아트센터
- 창원 봉곡평생학습센터, 중앙평생학습센터
- 복합문화 공유공간 어뮤즈

● 협력네트워크 수

52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2

지자체

10

사회복지

6

상담

3

시민단체

2

문화(예술)

27

개인

2

기타

서로를 존중하며 씨줄과 날줄로 엮혔을 때 만들어지는 탄탄한 공동체 문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년 문화예술교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종순 총괄PM은 인터뷰에서, 지난 6년간 ‘신중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동체의 결실이 바로 올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로 사회연대’를 함께 하는 ‘문화공간 만개’다.

문화공간 만개는 ‘신중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예술가와 예술교육가들이 협력하는 역량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중년 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온 공동체이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자녀의 독립을 마주한 신중년 세대가 겪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기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였다.

새로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사업들 속에서, 지역에는 하나의 예술가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그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 키워드

협력네트워크

연결자

활동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문화로 연결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역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및 기관의 단체로 찾아가 ‘마중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연결척도’에서 1~2단계로 측정 되신 분들에게는 맞춤형 처방 차원에서 1대 1의 프로그램 연계와 외로움에 대한 공감 및 사회적 고립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곧 진행하게 될 ‘삼삼오오’ 캠페인은 힘을 모아 외로움을 줄이고자 ‘외로움을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외로운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일지, ‘우리 사회가 외로움을 줄일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 줄로 문장을 적어 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체 정리가 되면 지자체와 공유하여 내년도 계획을 설계할 예정인데, 창원복지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연구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참여자 발굴과 연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중물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마중물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3~4개월의 짧은 기간의 사업이 종료되고 활동가의 부재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추천받은 마중물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기관과 단체, 단체와 활동가, 예술인과 기관의 연결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은 ‘문화 공간 만개’가 말았지만, 사업이 끝나더라도 문화예술 단체가 이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로 연결 활동가’는 어떻게 기획되었고, 운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 사회가 지속해서 관심을 쏟을 문제라고 생각했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지역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서로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며 ‘문화로 연결 활동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5명의 활동가로 구성되었고 일반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넘어서 ‘돌봄’에 관심이 있는 따뜻한 분들을 추천받거나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는 그룹으로 운영되는데, 창원은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퇴직한 신중년 세대가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6년간 진행했던 신중년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관련 워크숍과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예술 매개자 그룹이 1개 있고, 2018년부터 진행한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역량 강화 및 워크숍 활동에서 인연을 맺게 된 따뜻한 분들을 섭외하여 1개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열심히 학습했는데 ‘창원복지재단’의 ‘청년 고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 고립의 실태, 형태, 사례를 나누고, 영도 문화도시센터 사업의 선례와 외로움과 고립과 관련된 연구원, 박사님을 초빙하여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매주 고립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룹별 학습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전체적인 사업구조의 연결뿐 아니라 활동가 구성원들 사이에도 공동체로 연결되는 것에 중요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로 연결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삼삼오오 힘을 모아 외로움 줄여나가기

외로울 때
우리라면

사회적 고립·은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외로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마음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볼까요?

마중물 프로그램 ‘외로울 때 우리라면’ 캠페인



그렇다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왜 문화는 매개가 되었을까요?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문화의 속성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것 입니다. 문화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발자국, 색깔, 무늬, 결 같은 것들이 만나서 공동체로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각자의 개성과 결핍의 다양한 색깔을 존중하고 그것이 씨줄과 날줄로 얹혔을 때 저는 더 탄탄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한 사람이 가진 개성으로 관계를 맺고 연결을 이어가는 문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결국 연대의 힘은 문화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혼자가 아닌 여럿의 삶을 기본 바탕으로 만들어낸 문화가 연대의 힘도 더 끌어낼 수 있고 연대의 힘은 또 문화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문화로서 연대의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끝으로 ‘문화로 연결 활동가’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교육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문화예술교육사가 가지는 기본 베이스에 대상자 탐구와 이해 그리고 주변인의 인식도 전환 시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장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중심의 일방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문화라는 건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기에 자기 삶에 대해서도 계속 들여다볼 수 있고 깊이 마음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로 사회연대>에서 ‘연결’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사업으로서 다음 기약은 없지만 결국 그 ‘연결고리’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대답에는 ‘문화 공간 만개’의 결성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 공간 만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중 신중년 문화예술 교육을 6년간 진행하면서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공동체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의 끝과 시작에 따라 공동체가 해체되고 결성되는 형태의 반복성에 문제점을 인지한 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사업의 종료와 상관없이 공동체로서 지속성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계속 공동체로서 학습했던 이유도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활동가와 활동가, 활동가와 대상자, 마을과 활동가의 모든 연결이 얹혀서 돌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봉림동의 경우 동네의 사회적 기업과 LH주거행복지원센터, 그리고 문화예술교육단체, 예술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깊은 관심과 높은 의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손잡고’라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기존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왔을 때 여러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연결 고리가 만들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에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 공간 만개의 예술인 돌봄 활동가로 학교 밖 청소년과 그림을 매개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저와 연결이 되었는데, 외부인을 만나거나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고받는 자체가 어렵다 보니 뚜렷한 작업물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나이는 어리지만 그림에 소질도 있고 관찰력이 좋아서 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싶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과 시간이 느껴지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순간 있을까요?

제가 그 친구 방에 들어가면 보통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데, 반응이랄게 없어서 저 혼자 독백하듯 수업을 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린 작업물을 자주 보여줬어요. 저도 학생 때 축구선수를 많이 그렸었는데, 방안에 벽지를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축구 선수를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인체 그림을 연습했던 노트를 들고 가서 이불 밑으로 반절을 넣어주니까 쑥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길래 ‘한 10분 나가 있을 테니까. 편하게 나와서 봐’라고 말하고 방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뭔가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자극이 되었는지 다음 만남에 보면 작은 그림들이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는 날도 있는데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멋쩍은 상황이긴 합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하면서 이처럼 우울감과 고립감에 빠진 참여자를 만나는 예술가와 활동가에게 어떤 교육과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참여자의 정도에 따라 현장에는 예술가와 전문가가 동반 참여하는 건 꼭 필요하고, 관련 교육이나 심리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 위크숍을 듣고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분명 전문 영역이 각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고 해서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여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 집에 방문할 때도 심리상담 선생님과 청소년 활동 지원 선생님께 여쭙본 게 많았습니다. 실례가 될 만한 행동은 조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친구의 연습장을 내가 봐도 되는지, 만화책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친구 방에 두고 와도 되는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행동 하나하나를 여쭙봐 가면서 확인받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함에도 가끔 진이 빠진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술가로서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 친구와 많은 것들을 하고싶는데 과정이 쉽지 않으니깐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무기력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청소년 센터 선생님은 ‘방 안에까지만 들어간 것도 잘했다.’, ‘동화되면 힘들다 무거운 감정은 빨리 털어내라’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렇게 환기를 시켜줄 역할도 옆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연결자의 역할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여자였던 그 친구의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지만, 제가 그 집에 가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냥 친한 아는 형이 되어 주고 싶었고 이번 만남으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림에 소질도 있고 주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방 안에만 있지 말고 학교도 나가고 전문 교육도 받아서 웹툰 작가도 하고 사회에서 그림으로 먹고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술가로서 연결자나 활동가의 역할을 누군가 한다면 목표 지향적이거나 결과 중심적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뚜렷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잘 챙기고 보듬어야 하는데 마음이 건강하고 따뜻한 분이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로 사회연대>
활동가로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홍정미: 협동조합 ‘한들산들’은 마을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교육 공동체 사업을 주로 하는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제안받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참여자 발굴 단계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생각을 바꿨더니 고립돼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창원 봉림동에도 대문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이웃 주민과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설득하며 작은 문화 활동이라도 소소하게 즐기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재은: 11월에 열린 ‘봉림어때’라는 마을 잔치는 우리 협동조합만의 행사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 옆 초등학교, 마을 배움터, 동네 주변 학원 등 마을의 여러 참여 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연대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이는 우리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연대인데 주민자치회, 평생학습센터, 주거행복지원센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연결되었고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인식 전환 캠페인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로 사회연대>는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 주신 공동체의 ‘연결’이 사회를 보듬을 수 있을까요?

이재은: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점점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충족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의 연결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영어 강사였는데 제 일만 잘하고, 내 아이만 잘 가르치고, 우리 가정만 잘 지키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봐도 공기와 물은 순환되고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 지키는게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것처럼 공동체 연결의 과정은 힘들지만, 차곡차곡 쌓다 보면 사회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협동조합이기도 하지만, <문화로 사회연대>의 활동가 역할도 함께하고 계신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홍정미: 저는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일단 사람을 만날 때 색안경을 끼지 않고 마음을 열어 놓으려 노력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에 어려움을 가진 분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함께하고 싶다고 권유하고, 거절하시면 그분과 가까운 분을 통해서라도 계속 함께하기를 설득하며 대상자를 발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재은: 제가 활동가 이전에는 그냥 참여자였어요. 원래는 마을에 궁금함을 갖지도 않았고 애정이 크지 않았던 동네 주민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호기심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으로 좋은 분들과 관계도 맺고, 활동 의미와 경험이 좋아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감염병 시기의 공백기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 관심을 두고 보니 이제는 단순히 잠을 자거나 쉬기만 하는 장소가 아닌 거죠. 그런 작은 관심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기대하는 사회의 그림이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홍정미: 기대하는 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문밖으로 나와서, 다양한 사회 문화 활동을 접하고 편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동네 어른들과 거리감 없이 어울려 활동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조금 더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공동체지만 얻는 게 더 많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되었고 저변이 넓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제 개인적인 발전이 생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니, 내가 사는 마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도 생겨서 저처럼 더 많은 분이 함께하고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립과 외로움 없는

김해문화관광재단 경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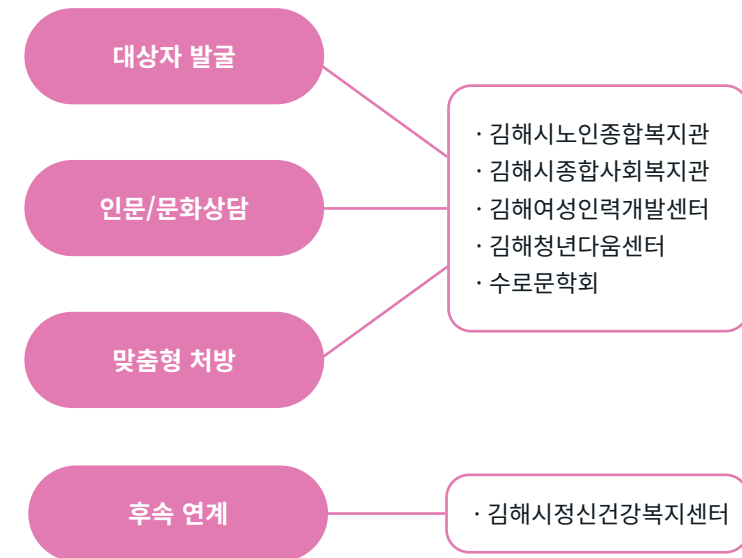
대상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주요대상	지역주민, 이주배경 청소년, 시니어, 한센인, 고려인, 청년, 여성, 사할린동포

주요내용

- 참여 대상군 확대 및 특화 대상 참여를 위해 사회적 연결적도 조사 설문지 다국어 (영문, 러시아어, 베트남어) 번역
- <마음 둘 곳> 온라인 플랫폼 개설 및 사업 전반 프로그램 시 활용할 <마음 둘 곳> 키트 제작
- 지역 내 이주민, 한센인, 고려인 등 다문화적 특성 뿐 아니라 특화 대상을 기반한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주요 특징

-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망을 형성하여 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 내 다양성 존중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포용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 도모



● 협력네트워크 수

26

총

● 영역별 참여 현황

4

지자체

6

사회복지

2

의료보건

2

상담

2

시민단체

7

문화(예술)

3

기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마음 둘 곳’이 될 수 있는 김해를 위하여

김해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야의 역사가 깃든 유적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풍경 뒤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김해의 이야기가 있다. 이주 배경 외국인, 경력 단절 여성,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

김해는 인구 대비 이주 배경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장벽과 편견, 생계 문제로 인해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온전히 녹아들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거 삶의 터전을 떠난 사할린 동포와 한센인 마을 같은 특수한 사례, 그리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독거노인의 증가까지, 김해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

다양한 과제의 답을 찾기 위해 김해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랐다. 문화와 예술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도구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과연 문화라는 매개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지, 김해의 특수한 지역적 맥락 속에서 이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을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고민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키워드

대상자발굴
마음 둘 곳



<문화로 사회연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무엇인가요?

김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이 가진 이슈와 도움이 필요한 대상군을 고려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인구 대비 이주 배경 외국인 비율이 약 3% 정도로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어렵거나 자녀의 교육과 생활을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편견이 생기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김해에 삶의 터전을 두지 않았던 분 중에는 경력 단절 여성도 많은데 새로운 곳에서 사회생활이 어려워 혼자 고립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한센인 마을과 사할린 동포 이슈도 김해 지역이 가진 복합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단에서 운영했던 사업의 인프라를 선별하면서 가장 많은 의문이 들었던 건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참여자의 적합성인데 취지와 가까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특화 대상자는 네트워크 협력과의 발굴을 피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재단 자체 캠페인 ‘마음 둘 곳’과 마중물 프로그램을 통한 발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특화 대상자의 네트워크 협력은 각 기관으로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네트워크로 구축된 기관과 지속적인 사업 방향성과 운영 방식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화 대상 참여자 발굴과 관련하여 사업 방향 설정 및 진행 과정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야글로벌센터 등 여러 기관과 이주 배경 대상자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의욕이 넘쳤던 초기와 다르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 진행과 상담에서 언어 문제가 있는데, 센터에 등록된 국가 수만 약 43~46개로 다양합니다. 베트남, 중국, 러시아의 비율이 제일 높지만, 그분들만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사회적 연결척도 검사’지를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였고 설문을 받는 데만 1시간이 소요되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서 ‘사회적 연결척도 검사’는 필수 과정인데, 그동안 센터에서 늘 사업의 대상자였던 분들이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자존감이 아주 낮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 문항으로 더 많은 기관과 깊은 협력 네트워크를 맺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1년 차 사업이라 미흡한 부분은 다양한 시도로 설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음 둘 곳’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둘 곳’은 김해문화관광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슬로건처럼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음을 두고 싶은 사람, 관계, 프로그램 등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매개체입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회적 연결척도 검사’에 참여하면 ‘마음 둘 곳’ 씨앗 키트를 증정해 드렸고 아직 준비 단계이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때, 재미난 것들이 하고 싶을 때, 때로는 상담이 필요할 때 편하게 연락하면 재단이 방문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데 이번 캠페인 행사에서는 ‘타로’가 인문 상담의 매개가 되었고 앞서서 노인종합복지관의 한마음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형태도 진행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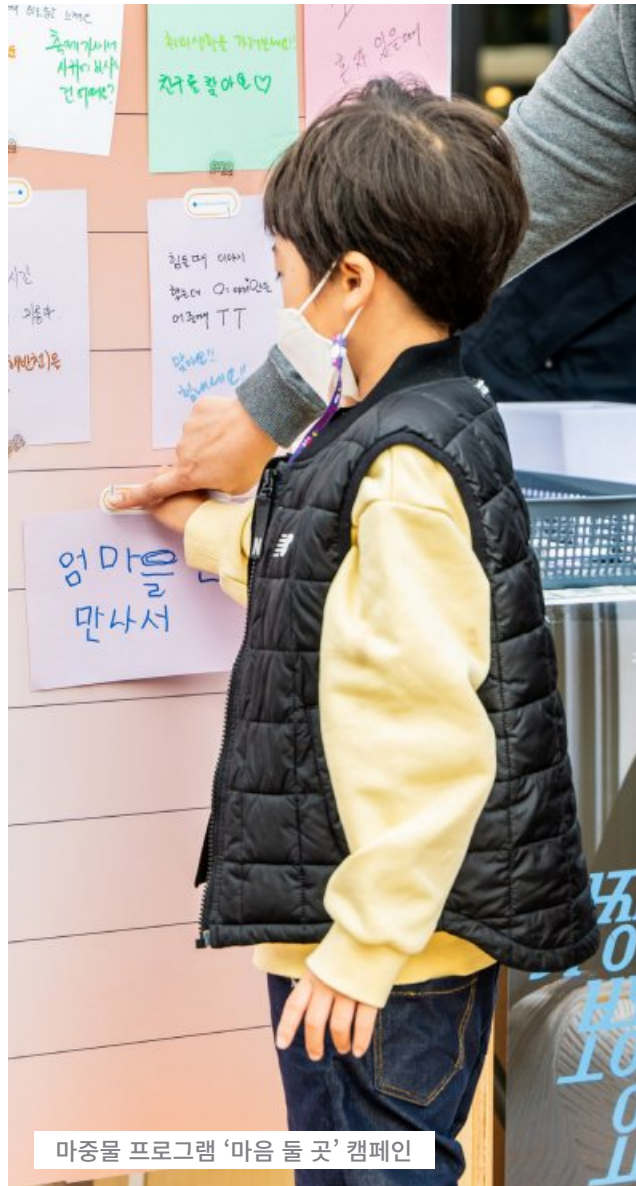
어떻게 보면 ‘마음 둘 곳’은 장소성을 갖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역할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어떤 장소를 두지 않고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큰 목적이 있는데, 협력 네트워크 회의에서도 나눴던 이야기로 ‘라포형성의 중요성’과 ‘프로그램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주가 되기보다는, 세상과 연결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둘 곳 인문 상담소’도 너무 딱딱한 형식으로 운영한다기보다 상담이 필요한 분에게 친구처럼 다가가고 전문가의 사후처방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실험 중입니다.

올해 진행한 사업으로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맺고 대상에 대한 고민도 깊으신데,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재단 업무를 7~8년간 해왔는데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실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의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 협력한다면 지역민에게 더 긍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인력 제한과 경쟁 구도로 그동안 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달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 많은 기관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담당자로서 신기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저조차도 야근을 마치고 늦은 새벽에 퇴근하다 보면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지만, 밖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듯 합니다. 그런데 계속 숨기다 보면 언젠가는 꺾다가 좋지 않은 형태로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이 단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서로가 가진 어려움에 공감하고 연결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치유와 예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중물 프로그램 ‘마음 둘 곳’ 캠페인

협력네트워크(사회복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여미진

김해문화관광재단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은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네트워크로 추진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외로움과 고독감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6회의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참여자 발굴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인근 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회의와 사례 관리에서 조금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15명의 참여자 1개 그룹을 만들었고, 참여자 발굴 단계에서 중점을 둔 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독거노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요가와 노래교실 참여 공연 관람 및 야외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복지관 이용자와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대상자는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지점은 없으셨을까요?

말씀처럼,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 대상자와 운영 방식이 달랐습니다. 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건강한 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화 여가의 성격을 띠지만 본 사업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외로움과 고독감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다른 참여자와의 만남부터 낯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병원 진료 시간을 안배한 일정 조정이나 혼자서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인력 차원에서 차이점이 컸는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30명 기준 1명의 사회복지사 진행이 보편적이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참여자 3명 기준 1명의 담당자로 배치하여 활동을 돕거나 지지를 보내는 등 그분들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지는, 라포 형성을 말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잘 오셨다’, ‘다음에 또 만나자’ 같은 가벼운 인사부터 활동 중간중간 피드백이 필요한 순간에 ‘힘들지 않느냐’, ‘다음에는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등 상황에 적절한 말을 건네고 표정을 살피는 등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6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각 행정동의 사회복지사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이 매번 사례 관리 네트워크 회의를 했는데, 어려운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역 자원을 결합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하여 1대 1로 인력을 배치한다면 외부 활동과 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상자를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 유형과 적절한 회차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가져서 다음 회기를 준비하거나 프로그램 종료 시 사후 간담회까지 진행하여 생각보다 긍정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문화프로그램의 주 강사를 축으로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보조 인력을 구성하여 6회기 전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참여자같이 외로움과 고독감에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술 강사 혹은 활동지원가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섬세함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의 그날그날의 감정 상태와 프로그램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자의 상황이 있고 대부분 말이 없거나 낮가림이 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 강사도 인사를 할 때부터 밝게 해야 할지 조금 차분하게 해야 할지 조심스러웠는데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옆에서 적절한 도움을 드리며 프로그램 진행을 세심하게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과 지속적인 연결성을 갖고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 혹은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 장치나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갖던 분들이 프로그램을 거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마음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뢰하여 전문가들과의 1대1 면담 및 문화 처방을 요청하였고 참여자에게도 긍정적인 수락을 얻어 3명씩 그룹 상담을 진행한 뒤 맞춤형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이웃 주민과의 반복적인 만남 및 산책 횟수 증가’ 등 다양한 처방으로 현재는 감정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관찰되는데 사례 관리자로 선정하여 앞으로 예정된 복지관 프로그램과 1대 1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관리 할 계획입니다.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노인복지관은 문화 여가 시설로 분류된 기관입니다. 기존에 많은 이용자들이 있음에도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사업 참여자에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업 초기에 사회적 연결척도 측정 시기와 결과에 따른 대상자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 종료 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집단 상담을 요청하거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선례를 찾아 견학을 기획하는 등 사업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복지관 이용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고독감에서 고위험군으로 관찰되는 분들을 빠르게 발굴하고 전문가 면담과 마중물 프로그램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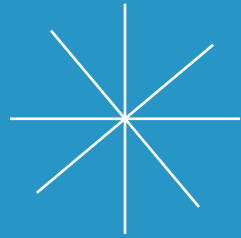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에 김해시의 한 지역기관으로서 참여하셨는데, 새롭게 발견한 점이나 의미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복지관의 이용자가 매일 600명 정도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분들과 마음에 대한 대화는 하지 않았죠. 보통 출석 체크에 초점이 있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에 차이가 느껴졌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체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중 한 분이 마지막 경주 나들이 시간에 ‘마지막 소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30년 만에 경주에 왔는데 이게 마지막이지 않겠냐’고 하시며 좋아하시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화재단이 여성,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고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생소하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문화와 복지 기관이 갖는 각 성격이 있는데 주제를 두고 지역 자원과 협업할 수 있던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또 다음 이슈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변형하여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



‘가장 보통의 외로움’



캠페인 노선 페이지
바로가기

“
날이 참 좋아,
그렇게 말을 건넌 사람은 없지만
”

가장 보통의 외로움

—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

Q | 가장 보통의 외로움

가장 보통의 외로움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

‘가장 보통의 외로움’은 국민 누구나 ‘나의 외로움’을 스스로 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며, 외로움을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포스터 및 영상

일상 속 가장 보통의 순간에 느끼는 ‘가장 보통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포스터와 영상은 성별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우리 누구나 외로움과 마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캠페인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 포함 총 5종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포스터마다 인물들이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세월은 짧은데, 하루는 참 길고 외롭구나”



“비빔밥 한 그릇에, 혼자 먹어야 하는 저녁”



“가보고 싶은 곳은 많은데, 같이 갈 사람은 없어”



“이 들숨을 보고 싶은 사람만 돌아가네”



캠페인 영상에서는 함께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 들 때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혹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갑작스레 외로움이 찾아올 때, 각각의 상황에서 외로움을 인지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의 순간을 나누고 서로를 연결하는 과정이 곧 문화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캠페인 영상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익광고(40초) 영상 보러가기

공익광고 영상은 일상 속 보통의 순간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들의 모습과 작은 변화와 움직임으로 외로움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마지막에 ‘당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해 주세요’로 이를 보는 시청자 역시 외로움을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풀(full)버전 영상 보러가기

풀 버전 영상은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들과 이를 해소하고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좀 더 긴 호흡으로 편집하여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지역거점센터 공동캠페인

가장 보통의 외로움은 문화로 사회연대 9개 지역거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일관된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거점센터는 ‘가장 보통의 외로움’이라는 공통의 슬로건 아래 지역마다 별도의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지역 행사 또는 사업 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거점센터	캠페인 내용
(충남권) 충남문화관광재단	- 청년축제 ‘픽타임 페스티벌’ 연계, 캠페인 진행 ‘충청남도 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연계, ‘연결ON, 외로움OFF’ 캠페인 진행
(전남권) 영암문화관광재단	‘2024 정신건강박람회’ 연계, 문화로 사회연대 부스 및 캠페인 진행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연계, 문화로 사회연대 부스 및 캠페인 진행
(전북권) 군산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열린 토크콘서트 ‘외로움, 잇-다’ 기획, 관계부처 및 유관 네트워크와 함께 민관 협력 군산형 외로움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경상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삼삼오오 프로젝트’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캠페인 및 이벤트 진행 ‘외로울 때 우리라면’을 통해 사업 대상지에서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경상권) 김해문화관광재단	시민주도 문화축제 ‘와야G’와 연계, 부스 및 캠페인 진행
(강원권) 춘천문화재단	다시 만난 날(후속교류) 프로그램 연계, 캠페인 진행
(강원권)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서울권)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권) 포항문화재단의 경우 사업 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캠페인 홍보 및 안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캠페인 홍보 추진	

공동캠페인 현장 엿보기



전남 지역거점센터(영암문화관광재단)
‘202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연계 캠페인 진행 모습



전북 지역거점센터(군산문화재단)
문화로 사회연대 열린 토크콘서트
‘외로움, 잇-다’ 진행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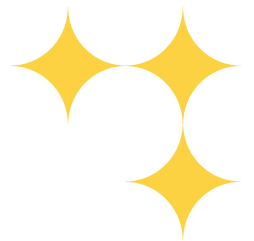


경남 지역거점센터(경남문화예술진흥원)
‘외로울 때 우리라면’ 캠페인 진행 모습



경남 지역거점센터(김해문화관광재단)
시민주도 문화축제 ‘와야G’와 연계 캠페인 진행 모습

국민들의 일상 속 외로움의 이야기를 모으고, 외로움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온라인 이벤트는 좀 더 친근하고 재밌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모루인형으로 만든 ‘모루용사’들을 외로움 특공대로 명명하였습니다.



외로움 특공대 출동! 모루용사 스토리

이벤트 1)

모루왕은 일상에 찾아온 차갑고 거센 ‘외로움 바람’을 막기 위해 모루용사들로 이루어진 외로움 특공대를 결성하고, 외로움 바람이 불어오는 파견지(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외로움의 순간들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들에게 모루용사(인형) 키링과 가장 보통의 외로움 슬로건 키링을 증정했습니다.

이벤트 2)

이렇게 모루용사들은 국민들의 참여로 모아진 외로운 순간들을 모아 대나무숲처럼 기록하며 위로를 전했지만, 외로움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모루왕은 모루용사들에게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오라는 새로운 임무를 내립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마주하고, 해소하는 작은 방법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했고, 이 이야기들이 모여 함께 외로움을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이벤트1) 외로움 특공대 출동! 모루용사 대작전 이미지



(이벤트2) 외로움 특공대 출동! 모루용사 외로움 해소 대작전 이미지

본 이야기들은 지역문화진흥원 및 캠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 10. 18. ~ 11. 8.까지 진행되었던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로움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모아졌을까요?

혼자 있는데 아플 때,
혼자 밥 먹을 때

혼자선 버티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주변에 미안하고
폐를 끼치기 싫어 혼자 끌어안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에도
연락하거나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왁자지껄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온 순간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집에 들어갔을 때

이른 새벽 홀로 눈을 뜬 후
적막감이 나를 감쌀 때

핸드폰이 충전하지 않은 채로
2~3일 이상 꺼지지 않을 때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을 때)

아이들에게
“엄마랑 같이 산책하러 가자!”
했는데 각자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갈 때

아무도 날 상대 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가족들이 아무도 내 기분과
상태를 이해하거나
배려해주지 않을 때

함께 있지만 존재감을
못 느낄 때

함께 있는데 나만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나만 친구들의 최근 소식을 모르고 있을 때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고싶은 활동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모두들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고
텅빈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고
누구도 육아와 집안일을 알아주지 않는 듯 느껴질 때

주변엔 다들 바쁘게
연락하는데 내 핸드폰은
조용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시스피커와 티키타카 하고 있을 때

하루일과를 다 끝내고
잠들기 직전 누워있을 때

아이들이 잠들고 육아에서
해방되었을 때, 좋은데 외롭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장애아동인 내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 혼자만 말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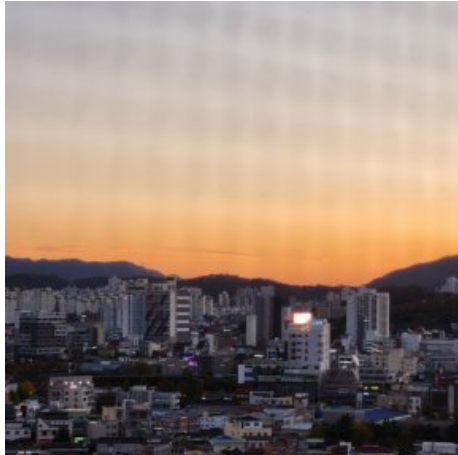
혼밥하는데 다른 테이블이
재밌게 떠들 때

이직하며 자취 1년차,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혼자 열심히 버티고 있지만 걱정이나 고민을 주변에
잘 말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고 있어요.
하지만 운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적막함에
외로움을 느껴요.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릴 때,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갈 곳이 없을 때

본 사진들은 지역문화진흥원 및 캠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 11. 18. ~ 11. 30.까지 진행되었던 이벤트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마주하고 해소하는 방법



하늘을 바라보기



70이 넘는 할머니예요, 남편이 얼마전 떠나고, 자녀들도 거의 다 떠났어요. 가장 외로울 때는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속이 텅빈 기계가 된 느낌이에요. 그런 감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계속 연락해요. 아! 아이들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어린이집 이야기 할머니예요! 어린이 인형극단 단원이고요!



저는 책 읽는걸 좋아해서 주로 독서를 한답니다!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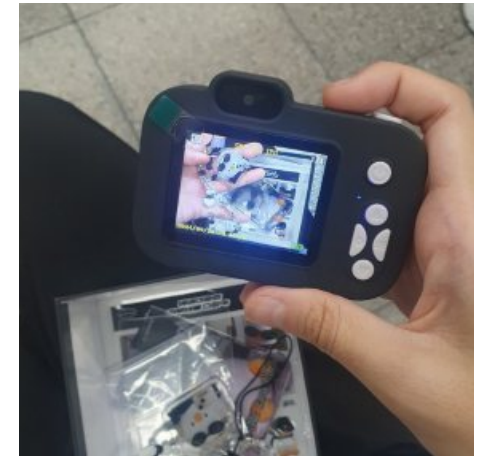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치다보면 마음속 외로움이 피아노 소리와 함께 나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반려동물인 육지거북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타지로 취직을 해 동네 친구가 없는 저는 외로울 때마다 멀리멀리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드라이브 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멋진 여행지를 사진에 담아오는 것도, 좋았던 여행지를 지인들에게 추천해주는 것도 저의 외로움을 이겨내게 해줘요!



옛날감성 카메라로 사진찍기. 나만의 세상을 저장하고 기록하며 찰나의 순간을 다시 되새기면서 지내기!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



맛있는 집밥 먹으며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2024 청년문화주간과 함께한 <가장 보통의 외로움>

2024년 9월 20일~9월 22일, 10월부터 본격적인 캠페인 추진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렸던 ‘2024 청년문화주간’ 행사에 청년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청년들에게 일상 속 외로움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전달하기 위해 외로움에 대한 사연과 사진 전시를 통해 인지하는 ‘마음을 여는 캐비닛’, 거울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외로움에 대한 생각들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외로움의 시선’, 론리니스 페이퍼에 적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외로움의 상황들에 공감하는 체험인 ‘외로움의 표현’, 그리고 평소 나의 외로움 상태와 더 나아가 외로움의 수준과 성향을 해석해볼 수 있는 ‘외로움 체크’와 ‘사회적 연결척도 검사 ZONE’ 총 5개의 과정으로 진행됐던 현장을 공유합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124페이지](#)의 노션 페이지 Q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 기록집

연결의 모양

발행일 2024년 12월 6일
발행처 (재)지역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전화 (02)2623-3100 | 홈페이지 www.rcda.or.kr
운영·제작 만물작업소

ISBN 979-11-92112-69-5(93300)

